

2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3941.59 (+96.03)		883.08 (+11.05)
	금리 (미국 9년)		환율 (한-달러)
	2.591 (-0.014)		1439.40 (-0.20)

m-커버스토리

워싱턴발 신호에 평양, 화답할까

한반도에 쏠린 눈

트럼프, 29일 1박2일 내한
“순방때 김정은은 만나고 싶다”
APEC 관전 ‘북미회담 성사’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훈풍이 다시 불지 주목된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자리해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사무소가 잇따라 철거된 지 5년여 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게 됐다. 경북 경주 APEC모임(10월31일~11월1일)을 둘러싼 관건은 북미 정상 간 회동 성사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게 될까. 워싱턴발 신호에 평양이 화답한다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둘은 다시 만난다.

트럼프는 지난 24일(미동부 시간)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용기를 타고 아시아 순방



지난 2019년 6월30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길에 나서기 전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만남이 성사될지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내가 그곳(한국)에 가는 걸 알고 있다.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 왔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언급도 전해진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젠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번 순방 일정에 아직까지는 예정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행보를 보일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달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일본을 거쳐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내한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APEC 비가입국 북한이다. 비공식 일정의 북미 정상 양자회담은 김정은의 결단에 달렸다.

한편 만남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김정은의 핵심 수행원인 최선희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는 일정에 따른 해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무성 초청으로 조만간 이들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그의 방문 기간과 의제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5

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 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과 회동 시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는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시기를) 논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그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북미 간 사상 첫 정상회담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주인공은 트럼프와 김정은이었다. 둘은 이후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을 가졌고, 같은 해 6월30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 마주한다면 네 번째 회동이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 간 통신연락망을 차단했고, 며칠 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 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 일 시: 2025년 11월19일(수) 오후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etro[®]

모든 자산가격 뛰는 ‘에브리싱 랠리’ 당분간 지속

코스피 고공행진 4000 눈앞
뉴욕증시, 연일 최고치 기록
美 금리인하 기대 ‘3저 현상’
“과잉낙관 이후 조정” 우려도

3900 허들도 높지 않았다. 코스피가 3000선(종가 기준 6월 20일)을 넘어선 지 넉달 만인 지난 24일 3900선(3941.59)을 가볍하게 넘었다. ‘사천피’ (코스피 4000)가 코앞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불과 58.41(1.48%)포인트 남겨두고 있다. 흘러넘치는 유동성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기업 랠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쌍끌이하하면서 최고치 경신이라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증시도 단기 변동은 있지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는 분위기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01% 오른 4만 7207.12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0.79% 오른 6791.69에, 나스닥은 1.15% 상승한 2만 3204.87에 각각 마감했다.

상승세가 주춤한 금과 은 시장도 여전히 자산시장의 중심에 있다. 자산 시가총액 분석 사이트 컴퍼니스마켓캡에 따르면 금은 시가총액 28조7190억달러(약 4경1203조1493억원)로 주식·귀금속·가상자산·상장지수펀드(ETF) 등 전 세계 주요 자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은은 3개월 전만 해도 8위에 머물렀지만 최근 금과 함께 나란히 가치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2조7300억달러(3917조 40억원)로 6위에 올라섰다.

부동산 가격도 여전히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5% 상승했다. 2월 이후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0.13%)와 비교해 0.12%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나타난 ‘3저 현상’(저금리, 유가 하락, 저달러)과 화폐의 구매력(가치) 하락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뛰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023년의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가 다시 재연되는 분위기다”면서 “당시와 비교해 예상보다 ‘끈적거리는 물가(sticky price, 한 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물가)’, 재정 리스크

및 관세 불확실성 등 일부 차이점도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과 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인 달러화 지수 등을 고려하면서 에브리싱 랠리 흐름이 재연되기는 충분한 환경이다”고 했다.

그러나 ‘버블(거품)’ 우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지금은 과잉 낙관의 시기이며, 이런 시기 뒤에는 언제나 조정이 온다”며 과거 닷컴 버블 후 많은 투자자가 돈을 잃었던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12월 금값 전망치를 기존의 트로이온스당 4300달러에서 4900달러(약 693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전선, 북미·유럽 중심 수주 ‘날개’

LS·대한전선, 수주 사상최대 공격적 수출로 성장기반 다져

LS전선을 비롯한 국내 전선 기업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주잔고에 힘입어 저수익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호황이 204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선 업계 양강 기업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글로벌 전력망 수요 확대에 따라 해외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LS전선의 올해 6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6조 2197억원으로, 지난해 말(6조 2741억원) 대비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6조원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9월에는 대만 포모사4프로젝트(약 1600억원 규모)를 수주하며 10회 연속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또한 유럽향 지중해케이블 내 초고압직류송전(HVDC) 비중을 확대했다.

대한전선의 올해 8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3조25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다. 8월에만 전남 영광 안마해상풍력해저케이블(1816억원), 싱가포르 400kV 초고압 전력망(1100억원), 카타르 초고압 전력망(2200억원) 등 총 5100억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메트로 한줄뉴스



- ▲29일 오전 10시29분 1분간 서울 전역 ‘이태원 참사’ 추모 사이렌
- ▲오세훈 “輿,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공개 토론회 제안”

/사진 뉴시스

- ▲장동혁 “이재명 폭거 맞서 박정희가 만든 대한민국을 지킬 것”
- ▲한동훈, ‘임대차 3+3+3’ 법에 “주거 재앙 가속화”

- ▲국힘 “차관 사퇴로 부동산 재앙 덮으려는李…대국민 사과하라”
- ▲국세·관세 모두 안 낸 공통체납자 700명 육박…1조원 넘어

대형 LNG선부터 중형 MR탱커까지 ‘원라인’ 완성

HD현대중공업, 美시장 공략 가속

HD현대미포조선과 합병계약
12월1일 통합 HD현대重 출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합병이 K-조선의 미국 시장 공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LNG선부터 중형 MR탱커까지 전 선종을 아우르는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서 글로벌 조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지난 23일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국민연금을 비롯 각각 참석 주주의 98.54%, 87.56%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이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닌 조선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HD현대중공업의 강점인 LNG운반선·VLAC(암모니아 운반선) 등 고부가 대형선에 더해, HD미포의 MR탱커·소형컨테이너선·LPG선 등 중형선 건조역량이 결합됐다. 대형에서 중형까지 이어지는 ‘원라인 생산체계’가 완성되면

서 조선소 간 생산라인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생산 효율화뿐 아니라 관리체계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설계·R&D(연구개발)·구매 조직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박 크기별 기능을 재배치하고 생산라인을 최적화해 납기 단축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닌 조선소 신뢰도와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 역시 2025년 12% 수준에서 오는 2028년 20%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합병을 통해 미국시장 공략에도 적극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톤급과 선종을 한 곳에서 공급할 수 있는 조선소를 선호하는데 HD현대중공업은 초대형 LNG선부터 중형 MR탱커, 자동차운반선(PTC)까지 전 스펙의 선박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향후 미국 해양청

(MARAD)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조선업 보호법(Jones Act)’에 따라 자국 생산 선박만 내항 운항이 가능하지만 LNG선·해양플랜트·방산용 선박 부문에서는 해외 조선소의 참여가 허용된다. 통합을 통해 생산 효율화와 기술 내재화를 마치게 될 경우 본격적인 북미 수주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미포 통합은 울산 중심의 효율화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글로벌 수주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진화 과정”이라며 “내수 중심 조선에서 대양 중심 조선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 한승한 연구원은 “HD현대중공업은 방산 MRO와 해양플랜트, LNG 중심의 고부가 선종에 집중하며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조직 슬림화가 아니라 중복 기능 정리와 생산 효율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APEC CEO 서밋과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수펙스

“미·중 갈등의 방향 가늠 보호무역 해법 모색의 장”

최태원 회장, APEC에 대한 견해
“자유무역 회복되기는 어려워
한일 경제연대·AI투자 등 해법”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한일 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AI) 투자, 해외 인재유입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6일 최태원 회장은 유튜브 ‘삼프로 TV’, ‘언더스탠딩’, ‘압권’ 등 3개 채널 연합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의 의미와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회담은 향후 몇 년간 미·중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700여 명이 참여하는 APEC CEO 서밋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이의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 글로벌 기업

인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전했다.

이어 “WTO 체제로 자유무역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성장공식이 이제는 관세 장벽에 막혀 통하지 않아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되는 만큼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공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법으로 ▲한일 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AI 투자 ▲해외 인재유입 및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한일 경제연대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블록화 시대에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며 “세계 4위 수준의 경제블록을 만들어 대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낡은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지향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별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용 기자

LS전선, 실적 개선에 중장기 전략 구체화

» 1면 ‘K-전선, 북미·유럽...’서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규 수주 확대에 힘입어 LS전선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약 8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향 지중케이블 사업에서 HVDC 비중이 확대되며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주효했다. 대

한전선의 3분기 영업이익도 약 3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적 개선 흐름과 함께 중장기 성장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다. LS전선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2023년 수주한 네덜란드 국영 전력망 운영사 테넷(Tenn

eT)의 2조원 규모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올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되며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2028년 완공 예정인 미국 버지니아 해저케이블 공장이 가동되면 북미 해저케이블 시장에서도 생산부터 납품까지 독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입찰이 예정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도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납품이 시작돼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wkh@

태양광 사업부지 사전 공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소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105-1, 105-2, 105-4, 105-5 토지 위

2. 발전소 명칭

발전소명	사업주명
이천1호태양광발전소	최선미
이천2호태양광발전소	최선미
이천3호태양광발전소	이중권
이천4호태양광발전소	이중권
이천5호태양광발전소	(유)금성에너지

3. 발전소 면적 : 6,955㎡

4. 발전소 내용 :

－설비용량 : 89.6kw*4개소, 498.56kw*1개소

－사업개시예정일 : 26년 02월

－사업운영기간 : 2026년 02월 ~ 2046년 01월 (예정)

5.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 최선미, 이중권, (유)금성에너지

6. 의견서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 ~ 2025년 11월 7일

7. 의견서 제출방법 : 전화 063-255-2581, 팩스 063-251-2581

e-mail : ok1300@daum.net

전기차·하이브리드·PBV... 세 축으로 '미래 성장' 그린다

산업의 최전선



기아는 2020년 플랜 S를 발표하고 모빌리티,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2021년에는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위해 사명도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변경했다. 플랜 S 역시 기아의 중장기 미래 전략으로, 'S'는 전환(Shift)을 뜻한다. 체질 개선을 위해 기아는 향후 5년간(2025년~2029년) 총 42조원을 투자해 전동화,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픽업트럭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편집자주〉

◆ '친환경 전환' 글로벌 점유율 상승... 역대 최대 실적 작성

기아는 친환경차의 판매량 확대에 힘입어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은 사상 첫 100조 원대 매출 달성 등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107조 6671억원, 영업이익 12조 6671억원, 판매 308만 9300대, 영업이익률 11.8%를 기록했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기아의 체질 개선이 주효했다. 북미·신흥시장 판매 호조와 우호적 환율, 친환경차 판매 비중 확대(2024년 연간 63만 8000대, 비중 21.4%) 등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국내보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스포티지와 셀토스가 인기를 끌며 판매량을 이끌었다. 또 카니발과 쏘렌토 등 RV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비중이 확대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해외 생산 거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글로벌 분산이 효율적인 생산 계획 등을 이끌고 있다. 중국 공장의 경우 현지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현지 공장을 수출 거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는 중국 장쑤성 옌청 1, 2, 3 공장에서 연간 약 89만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3공장은 지난해 가동을 시작 K3, K5 등 내연기관차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는 전용 라인을 갖춘 2공장에서 생산한다. 이곳에서는 EV5 등의 수출 물량을 생산하며 2027년까지 25만 대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EV5, K5 등 주요 차종은 호주와 멕시코, 중동 등 신흥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 공장은 연간 40만대를 생산하며 프라이드와 K3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미국 공장은 K5, 쏘렌토, 텔루라이드, 스포티지 등을 연간 34만대 가량 생산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연간 33만대로 스포티지와 씨드, 벤가를 생산한다. 인도 공장은 연간 30만대를 생산, 셀토스, 쏘넬, 카렌스, 시로스를 생산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는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시장 공략과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소비자 입맛에 맞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는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 공략... 2030년 419만대 목표

기아는 프랜 S 전략에 맞춰 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419만대를 판매하고, 시장점유율 4.5%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기아는 최근 진행된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플랜S 2030'을 공개했다. 2030년 북미에서 111만대, 유럽에서 77만대를 각각 판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58만대, 인도에서는 4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친환경차 비중 두 배 확대 본격화 EV·HEV 결합한 성장엔진 강화 글로벌 거점 전동화 생산 가속 고부가 RV·SUV 중심 수익 개선 '100조 시대' 질적 성장의 전환점

미국에선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현지 생산을 강화한다.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유럽에선 신규 차량을 출시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에선 PBV, 픽업 등 신규 시장을 확대해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친환경차 판매를 올해 89만 7000대에서 2030년 233만 3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판매 비중으로 보면 28%에서 56%로 두 배 늘어나는 셈이다. 전기차는 125만 9000대를,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107만 4000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2030년 주요 시장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북미 70%, 유럽 86%, 인도 43%, 국내 73%다. 기아는 올해 말 기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포함) 23종, 전기차 9종인 차량라인업을 2030년 기준 내연기관 17종, 전기차 15

종 등으로 재편한다. 전기차는 EV3, EV4, EV5에 이어 내년 EV2를 출시해 대중화 모델 라인업도 확대한다.

PBV 등 신차종도 투입한다. 오는 7월 처음 출시하는 PV5를 시작으로 2027년 PV7, 2029년 PV9 등을 출시하기로 했다. PBV 판매 목표는 2030년 유럽 13만 3000대 등 글로벌 25만대다. 최근 출시한 픽업트럭 타스만은 호주를 포함해 신흥 시장에 진출하고, 북미 시장에선 전동화 픽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익선 회장은 올해 유럽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조직문화는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서로를 믿고 모두의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우리는 함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중장기 상품 및 미래 사업 전략

기아의 중장기 전략을 보면 정익선 회장의 미래 모빌리티 개발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바로 '인류의 평화로운 삶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성능과 가치'인 인간중심에 있다.

기아는 중장기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상품 전략으로 ▲커넥티비티 서비스 ▲자율주행 기술 ▲퍼포먼스(성능) ▲디자인을 제시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해 상품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기아는 OTA(Over-the-air) 기술 확대로 장소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등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2023년부터 한국과 미국, 유럽에 커넥티드 스토어를 출시해 디지털 형태의 FoD(Features on Demand)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 커넥티드카 서비스(CCS)를 2024년 말 기준 34개국에서 2026년 말까지 아프리카, 중동, 아태, 중남미 등으로 확대해 총 71개국까지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아 양재본사.

기아는 미래 상품의 핵심인 자율주행, 자율주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인프라, 산업표준 기술 등은 파트너십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상품 방향성인 SDV와 연동해 자율주행 기술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기아는 신규 파워트레인 개발을 통해 미래 친환경 차량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기술인 2.5터보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행 효율을 높인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EV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결합한 EREV 시스템을 전개할 계획이다.

SDV·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추진 커넥티드카 서비스 71개국 확대 PBV·로보틱스로 신시장 개척 중 소프트웨어 중심 조직체계 강화 '사람 중심 혁신'으로 지속 성장

기아는 성공적인 SDV 전환을 위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인 포르투갈과 협력하여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아는 미래 기술의 중장기적 적용과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 모셔널, 보스턴다이나믹스, 슈퍼널 등 주요 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모셔널의 경우, 라스베이거스, 피츠버그에서 로보택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아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경우, 물류센터에 스트레치(Stretch) 로봇을 도입하고, 최종 배송 단계에서 PBV와 스폿(Spot)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슈퍼널과의 협업을 통해서 VIP의 전이나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등에서 PBV와 연계한 지상-도심항공간 멀티모달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기아는 지난 2021년 '기아 트랜스포메이션(Kia Transformation)'을 선포한 이후,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공간을 혁신하고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내실을 강화하고 자동차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브랜드의 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 조지아 공장.



APEC 2025 KOREA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합니다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

글로벌 조선 1위 기업 HD현대중공업,
중형선박 분야 1위 HD현대미포.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자부심을 지켜온 두 회사가
하나 되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더 큰 기회를 만들고
조선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K-방산과 한미조선협력을 주도하고,
친환경 스마트 기술로 K-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상경 사퇴·장동혁 투기 의혹 등

10·15 부동산대책 여진

與野 ‘갑론을박’… 정쟁으로 확산
부동산 정책 설계자 이상경 차관
부적절 발언·갭투자 의혹에 사퇴
野 부동산 정상화 특위 대표 장동혁
부동산 6채 보유… 실거주용 반박
대통령실 “머리·발 따로 사나”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대책 관련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의혹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여당은 야당 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10·15부동산 대책이 정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공식 사과 후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전 차관은 한 경제 관련 유튜브에 출연해 “후후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못매를 맞았다. 또한 자신이 30억원대 아파트 갭투자의 책임을 받았음에도 갭투자 근절 대책을 내놓아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가 재현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개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상경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전 차관은 다음날인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동혁 대표에 불뚫 된 부동산 투기 논란

정치권에서 부동산 이슈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에게 불뚫이 튀며 정쟁화되는 모습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다”면서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집단, 내로남불의 본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장동혁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거주용’ 보유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보유한 6채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수요가 있는 것이고 거주하는 것들이지만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말을 보탰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거주용이라는 장 대표의 해명에 “부동산 여섯채가 실거주용이라면 머리와 발이 따로 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여진은 계속, 보유세·재조환·3·3·3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부동산 쟁점을 두고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부동산 공급책과 규제책이 모두 나온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세제개편에도 용기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당 내부에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조환)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나 문진석 원내수석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조환 제도는 재건축 시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대 50%를 국가가 분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것인데, 재조환제를 폐지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한편, 여당 일부 의원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한 주택에 최대 9년(현행 4년)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계약은 최초 3년 거주를 보장하고 갱신권을 두 번 사용해 최장 9년을 살도록 하는데, 임대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野, 주말에도 70여건 민생법안 합의처리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의결

여야가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주말에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70여건의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합의법안을 처리해갔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이 지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법법 제정안,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 개의 법안은 11월 본회의 때 상정될 수 있어 여야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때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고 날을 세웠지만, 이번 민생법안 처리엔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량을 타고 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자 간의 전용통신 채널을 만들고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같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 센터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 현장에선 현행법에 규정된 5%의 보증금 증액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지역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본회의에 보고됐다. 무안공항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철근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모처럼만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음에도,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피지 분실 논란과 쿠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립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엔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김현직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李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韓-캄 ‘스캠’ 대응 주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
美 관세부와, 히토류 접근성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히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논의,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훈 마넛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수행원들과 함께 출국했다. 이날부터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 비롯해 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도 참석한다. 중국 대표로는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함께 한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히토류 접근성과 가자지구 휴전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일단 27일 훈 마넛 총리와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캄보디아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과 한국인 피해 근절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스캠 범죄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송환되는 등 범죄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양국의 대처 방안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불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명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식량·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아세안의 장관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인프라·방산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서예진 기자 syj@

 **APEC** CEO SUMMIT
KOREA 2025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K의 힘으로 한국에서 세계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APEC CEO Summit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65만명 역대최대

지방은행 ‘외국인 전용 대출’ 속도

지방은행, 외국인 시장 선점 나서
초기 거주비·생활비 등 수요 분영
iM뱅크·경남은행 등서 상품 선택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전용 대출 취급을 확대하며 시중은행보다 한 발 빠른 시장 선점에 나섰다. 거점지역 내 인구 및 산업 유출이 가속하면서 외국인 고객이 지방은행의 거점지역 내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65만명이다. 직전 년도보다 15만명(5.7%)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외국인 등록 고객 수도 813만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체류자의 약 3배 이상에 해당한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는 임금 지급·장학금 수령 등 경제활동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외국인의 금융 수요가 늘면서 은행권에서도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주요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은 통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특화 점포를 설치 및 운영 중이며, 인터넷·모바일 뱅킹에도 다국어어 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개선 움직임에도 국내에서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은행권

금융 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다. 국내의 금융 서비스가 엄격한 실명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재직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가 불충분하다면, 외국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는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환전·송금 등 신용 정보와 무관한 상품에 한정된다.

시중은행들이 예·적금과 환전·송금 등 기존 외국인 대상 서비스에 집중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 지방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재직정보, 체류 기간 등 대체 정보를 활용한 외국인 전용 대출 상품의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정착 초 거주비·생활비 등 소액 대출 수요가 분명한 만큼, 성장성 높은 외국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각 지방은행이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대출 상품은 ▲웰컴(WELCOME) iM 외국인 신용대출(iM뱅크) ▲K드림 외국인 신용대출(경남은행) ▲투게더(TOGETHER) 유학생 신용대출(광주은행) ▲JB 브라보 코리아(BRAVO KOREA) 특판 대출(전북은행) 등이다. 부산은행은 별도의 전용 대출 상품은 없지만, 감해점을 비롯한 특화 점포에서 외국인 대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방은행 외국인 전용 대출 상품의 금리는 중·저신용자 상품이나 카드론·저축은행 대출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비슷한 연 8~18% 수준이다. 일반 신용대출 상품보다 수익성이 높다. 또한, 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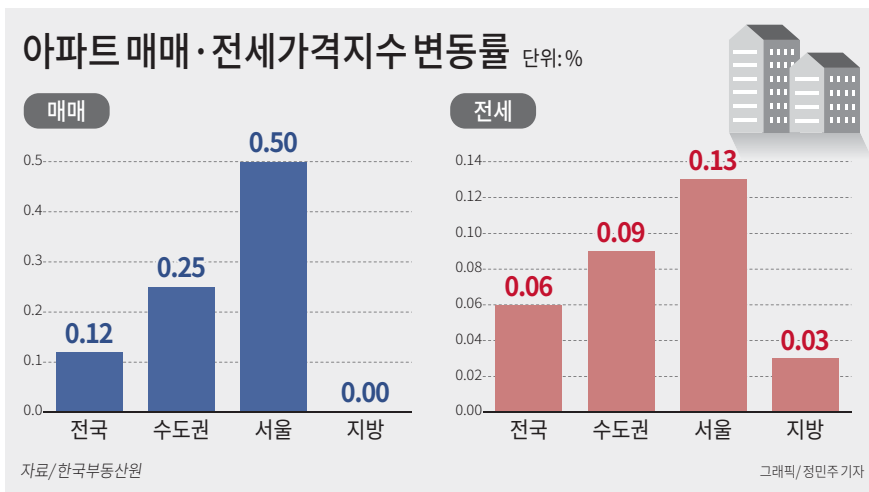
인 고객의 입장에서 지방은행의 대출 상품이 네팔·캄보디아·카자흐스탄 등 출신국 은행권 금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에 이용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고객 확보에 힘쓰는 것은 지역 경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등록외국인 수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곳은 경북(17.6%)이다. 전북(12.6%), 전남(11.4%), 경남(11.4%) 등 각 지방은행의 거점지역도 등록외국인이 10% 넘게 성장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등록외국인 성장률은 8.67%였다.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대출의 대다수도 지방은행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앞서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상반기 컨퍼런스(IR)에서 전북은행이 공급한 국내 외국인 대출 점유율이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의 금융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지방 소멸로 지역 경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지방은행의 입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외국인 고객의 금융 수요 흡수를 위해 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10·15 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38주째 ↑

서울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38주 연속이다.

특히 성동구·강동구·광진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은 1% 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 발표 이후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까지 5일 가량의 시차로 인해 막차 수요가 쏠렸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0% 올랐다. 전주(0.5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시행 5일 시차에 막판 수요 광진 1.29%, 성동 1.25% 상승

전국 기준 0.12%, 지방은 보합
당분간 부동산 시장 관망세 전망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과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와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에서는 광진구(1.29%)는 광장·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1.25%)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강남에서는 강동구(1.12%)는 명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96%)는 목·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93%)는 방이·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0.12%, 수도권은 0.25% 올랐다.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구(1.78%)와 과천시(1.48%)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지방(0.00%)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전망이다.

부동산R 114관계자는 “10·15 대책 효과가 온전히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서울지역의 주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을 뿐만 아니라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6·27대책 대비 10·15대책이 더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되는 만큼 규제지역 내 아파트 시장은 거래 급감, 가격 상승폭 둔화 현상들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06%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1%→0.09%)도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은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0.13% 올랐다.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를 끌어올렸다. 양천구(0.29%)는 목·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서초구(0.29%)는 잠원·우면동 위주로, 송파구(0.27%)는 방이·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0.03%) 전세가격은 5대광역시(0.04%), 8개도(0.01%)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릿고개’ 카드사, 3분기도 실적 난망

가맹점 수수료수익·카드론 잔액 감소
삼성카드 등 카드사 영업익 줄어듦

카드사들의 하반기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분기 실적 개선도 요원할 전망이다. 카드론 잔액 감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실적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인 삼성카드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카드사들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예상 실적 부진 원인으로 업계 전반의 거시적인 변수가 지목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다. 실제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순이익은 1조 22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3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2911억원 감소하며 총수익 하락세를 견인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1313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관련 수익이 약 4200억원 악화된 셈이다.

지난 2월 정부의 가맹점카드 수수료 올 인하책에 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연



카드사들의 3분기 실적이 주춤할 전망이다. 서울 한 음식점 앞에 결제가능 신용카드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시스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은 0.10%포인트(p), 연 매출 10억~30억원 중소 가맹점은 0.05%p 규모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카드론 잔액 감소 현상도 실적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업카드사 9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카드) 카드론 잔액은 5월(42조 6571억원), 6월(42조 5148억원), 7월(42조 4878억원), 8월(42조 4483억원), 9월(41조 8375억원)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카드론은 카드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으로 카드론이 신용대출 범위에 포함, 대출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카드업계 카드론 사업 규모가 위축된 것이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연체율도 위험 요인이다. 현재 카드사의 올해 8월 기준 연체율은 3.3%로, 지난 2021년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체율이 오르면 카드사들은 리스크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손충당비가 늘어나 총비용이 커져,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순이익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상장사인 삼성카드의 3분기 순이익은 1596억원으로 컨센서스를 4% 하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나금융,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 신설

‘경제성장전략 TF’ 구축

하나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현재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하고 ▲관계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관리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

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재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자회사 내 구축함으로써, 지주와 자회사 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함영주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이루고, 금융산업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손님·주주·직원·사회와 장기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
Shinhan

APEC 2025 KOREA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무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찬란히 빛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AI發 글로벌 반도체 수요 폭증 삼성, ‘통합 생산체계’ 힘 받는다

TSMC, 주요공정 포화단계 임박

삼성, 파운드리·HBM·패키징 연계
글로벌 AI 반도체 고객사 확보 속도

인공지능(AI)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생산능력(CAPA)이 ‘풀가동’ 상태에 놓였다. 이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고대역폭메모리(HBM)·패키징을 연계한 통합 생산체계를 준비중인 만큼, 시장 안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TSMC의 첨단 패키징(COWoS)과 3나노 공정을 포함한 주요 공정이 모두 포화 단계에 근접하면서 대체 생산거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3분기 실적설명회에서 전·후공정 생산능력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며, AI 관련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공급 격차를 점차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TSMC 웨이저자 CEO 역시 “AI 수요의 구조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TSMC는 연간 설비투자(CAPEX) 규모를 기존 380억~420억달러에서 400억~420억달러로 20억달러(약 2조8800억원) 상향 조정했으며 재고자산 회전일수 또한 87일에서 74일로 단축했다.

해당 추세가 메모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장기 호황(슈퍼 사이클)을 뒷받침한다는 의견과는 별개로, 트렌드포스 등 일부 시장조사기관은 TSMC의 COWoS 생산 병목이 2026년까지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렌드포스는 “AIGPU 패키징 수요가 공급을 꾸준히 앞서면서 TSMC의 첨단 라인 가동률이 사실상 100%에 근접했다”며 “AI 칩 공급망이 TSMC 중심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과 부족은 엔비디아와 AMD 등 고객사들로 하여금 중장기 생산거점 다변화를 검토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TSMC가 설비투자 확대에 나서는 등 단기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첨단 반도체의 공급 구조상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공정 복잡도와 장비 수요가 급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개과 확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HBM, 패키징을 연계한 ‘통합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AI 반도체 고객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통합 생산체계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별도 공정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단일 라인에서 처리함으로써 납기 단축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며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을 가시화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AI 수요 급증으로 TSMC의 패키징 개과가 어느 정도는 천장을 보인 만큼, 삼성이 전공정·후공정을 연계한 특유의 수직 통합 생산체계를 완성한다면 중장기적으로 AI 칩 고객사의 생산 다변화 수요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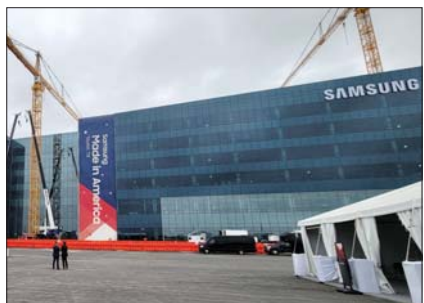
삼성전자, 테슬라 ‘AI5칩’ 생산 합류

美 테일러공장 수율 안정화 주력
파운드리 사업 긍정적 영향 기대

삼성전자가 테슬라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생산을 대만 TSMC와 함께 진행한다. 기존 TSMC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며 양사 간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AI5’의 생산거점으로 유력한 미국 테일러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최신 2나노(nm) 공정 수율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TSMC가 단독 진행하던 테슬라의 자체 AI 반도체 칩 ‘AI5’ 생산에 참여한다.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생산 규모나 TSMC와의 분담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낮은 수율과 성능 문제로 TSMC 대비 시장 점유율·기술 성숙도에서 격차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운드리 및 시스템LSI 사업부는 상반기에 2조원대의 적자를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낸 바 있다. 이번 수주가 당장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공정 안정화와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 실적 개선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TSMC가 메인 공급사며 삼성전자가 ‘추가’ 혹은 ‘일부 물량’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따른다. 결국 어느 정도 규모로 물량을 확보하는지가 경쟁 구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테일러공장의 생산 안정화 속도와 수율 확보가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에서 주요 과제로 꼽힌다. 테일러팩은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고객사 미확보로 공사가 지연됐었

다. 장비 반입 일정과 수율 안정화 과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양산은 내년 말쯤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테일러공장은 2나노 공정을 양산할 계획인 만큼 이번 테슬라 AI칩 양산 경험을 확보하면 기술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수율은 50%를 넘어 내부 목표치의 85%를 달성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양산 수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정 개선 작업 중이다.

가격 경쟁력 역시 양사 간 경쟁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최근 TSMC는 2나노 웨이퍼 생산 단가를 장당 3만달러 수준으로 책정하며 전 세대 대비 50% 이상 인상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약 2만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테일러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안정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수주가 늘어난다면 파운드리 사업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 19개 계열사 직무적성검사 실시

삼성이 25~26일 이틀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 (GSA T, Global Samsung Aptitude Test)를 실시했다.

26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

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서울병원 ▲제일기획 ▲에

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9곳이다.

삼성은 지난 8월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하반기 공채 절차를 시작했으며 면접(11월),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은 지난 9월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해 차세대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D현대와 헌팅턴 잉겔스는 26일 ‘APEC 2025’가 열린 예정인 경북 경주의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주원호 사장과 헌팅턴 잉겔스 에릭 쉼닝 전략 개발 부사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와 네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상선 및 군함 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HD현대

HD현대, 美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건조

헌팅턴 잉겔스와 설계·건조 MOA

HD현대와 미국 최대 방산 조력사인 헌팅턴 잉겔스와 손잡고 미국 해군의 ‘차세대 군수지원함’ 건조에 나선다.

HD현대는 26일 경북 경주 ‘APEC 2025’가 열리는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헌팅턴 잉겔스와 상선 및 군함 설계·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는 지난 4월 헌팅턴 잉겔스와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10월 초에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실무진이 미국 미시시피주 잉겔스 조선소를 찾아 조선 기술 협력과 제조 공정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9월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의 정기 정비 사업에 본격 착수하는 등 미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한·미 간 군수지원함 분야 협력의 첫 사례다.

미 해군이 새롭게 개발 중인 차세대 군수지원함은 작전 해역에서 전투함에 연료 및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함정이다. 기존 보급함보다 기동성이 높고, 효

율적인 운용이 가능해 미 해군의 보급 및 물류 능력 현대화 전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해군은 최근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설계를 위한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이번 MOA에 따라 양사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의 설계·건조 협력은 물론, 상선·군함 전반에서 건조비용과 납기 개선을 위한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내 조선 생산시설 인수 또는 신규 설립에 공동 투자하고, 헌팅턴 잉겔스 그룹의 두 조선소(뉴포트 뉴스 조선소, 잉겔스 조선소)에 블록 모듈과 주요 자재 공급도 추진한다. 조선 분야 엔지니어링 합작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미 해군 및 동맹국 함정의 유지·보수(MRO)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주원호 사장은 “이번 MOA는 미 해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공동 참여, 미국 내 선박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투자 등 한국과 미국의 대표 방산 조선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사례”라며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과 미국의 방산 시장 경쟁력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혜운 기자 dhalehale@

LG전자, 6G 등 미래기술 주도권 선점 나서

Future 2030 서밋

로봇 정밀 제어 솔루션 등 기술 시연

LG전자가 6G, 인공지능(AI), 양자, 우주산업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LG전자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LG전자 서초 R&D캠퍼스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T)과 함께 ‘Future 2030 서밋’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 기술 분야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기술 목표, 유망 기술, 응용·서비스 전망 등을 교류하며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는 기술 교류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현직 LG전자-KAIST 6G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동호, 홍성철 KAIST 교수, 한국통신학회장 허준 고려대 교수, ORIA 운영위원장 김동구 연세대 교수, 한상욱 한국양자정보화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항공우주정착 소속 연구원 등 국가 출연 연구기관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다양한 미래기술 시연도 진행됐다. LG전자는 ▲주파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6G FDR(전 이동 통신) 신규 솔루션



LG전자가 24일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T)과 함께 개최한 ‘Future 2030 서밋’에서 LG전자 CTO 김병훈 부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LG전자

선 ▲P5G 통신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팩토리 내 수많은 로봇을 끊임 없이 실시간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 ▲인공위성 등 대기권 밖에서 운영되는 비지상 통신망(IoT-NTN)을 활용해 사막, 산악지대 등 네트워크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음성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차세대 음성통신 솔루션 등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KAIST와 KRIST의 ▲AI 반도체 기반 로봇 시연 ▲로봇 기반 6G 무선 전파 측정 시스템 및 공간 다중 모드 송수신 시연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컴퓨팅 소재 개발 SW 솔루션 전시도 관심을 모았다.

/차현정 기자

개발·생산·정비 ‘패키지 동맹’… K-방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ADEX서 美·EU 기술협력 확대
한화·KAI·로템 공동개발 추진
유럽 현지생산·정비 본격화
후속군수·훈련 서비스 확장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공동개발·현지생산·운용정비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성능·국산화를 높이는 공동개발, EU 역내 조달 기조에 맞춘 생산거점 확대와 장기 운용·정비(O&S) 협력까지 포괄하는 ‘패키지형 동맹’ 전략으로 글로벌 4위 방산강국 도약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를 계기로 주요 업체들은 미국·유럽 기업과 기술·무기·플랫폼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다수 체결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 특수임무기·중형헬기·KF-21 급유비행시험 등에서 협력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GE에어로스페이스와 해군용 가스터빈 패키지(LM2500·LM500)를 공동개발한다. GE가 핵심 엔진을, 한화는 통합 어셈블리 설계·생산을 담당한다.

현대로템은 미국 방산 인공지능(AI)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솔루션 기업 씰드AI와 AI 기반 다목적 드론 운용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대한항공은 미국 무인기 전문업체 AV사와 ‘JUMP 20’ 기반 중형 무인항공기 시스템(MUAS)의 한국형 통합·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이들 협력은 기술 주권 강화와 현지화 기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산 수출의 축은 이미 완제품 판매에서 기술이전과 현지생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 중동 등이 자국내 생산을 요구해 국내 기업들은 이전 가능한 범위의 기술을 제공해 시장 접근성과 장기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 7곳과 함

께 보병전투장갑차(IFV), 모듈형 추진장악(MCS), 유도무기의 유럽 현지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협력·품질관리·현지 인력 교육과 함께 판로 확대를 위한 금융·비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지화는 조립 거점을 넘어서 수명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서비스 경쟁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한화는 노르웨이 아코디스 노르딕스와 ‘천무’ 시뮬레이터 공동개발에 나서 훈련·운용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무기체계 생애주기 비용의 약 70%가 운용·정비(O&S) 단계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정비·훈련 등 후속군수지원 계약은 방산 수익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

틴과 미군 회전익기 후속 군수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미국 S3 에어로 디펜스와 항공기 공압 터빈 스타터(ATS) 정비기술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기술·생산·정비 단계까지 확장되는 가운데 세계 방산 시장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기 판매액은 3187억 달러, 러시아 1116억 달러, 프랑스 195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95억 달러(13조8300억 원)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올해 150억 달러, 내년 200억 달러로 글로벌 4위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통령실은 ‘방산 4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실장은 최근 폴란드·루마니아의 정상·장관급 면담과 대통령 친서 전달 등 수주 지원활동을 했다.

류연승 명지대 방산안보학과 교수는 “EU는 역내 조달·현지생산을 지향하며, 역외 도입 시에도 현지생산 조건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보호무역에 가깝다”며 “한국이 글로벌 4위 방산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공동개발·현지생산·O&S를 결합한 패키지형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창업진흥원

AI·딥테크 등 총출동

K-스타트업, 아시아 공략

SWITCH 2025서 한국관 운영

창업진흥원이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MBS)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기술·혁신 주간(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SWITCH) 2025’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 통합관’을 운영하고 국내 유망 창업기업 38개사가 참여한다. 여기에는 딥테크, AI,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관련 기업이 포함돼 있다.

26일 창진원에 따르면 이번 통합관은 한국관 중 최대 규모(총 198㎡)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한국과학기술원이 함께 운영한다.

SWITCH는 싱가포르 중소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이 주최하고,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재단(NRF)이 후원하는 아시아 대표 기술·혁신 축제다. 지난해에는 100여 나라에서 2만명 이상이 참여했고, 400개 전시업체와 30개의 국가관이 함께해 글로벌 혁신과 기술창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CC, 신형기 도입 가속… 효율·경쟁력 동시 강화

이스타·제주, B737-8 투입
연료효율 높여 수익성 제고
탄소감축 규제 대응 본격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잇달아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며 기단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지속되며 달러로 결제되는 리스료와 유류비 부담이 함께 커졌지만, 연료 효율을 높이고 정비·결항 위험을 줄여 수익성과 운항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26일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A320neo·B737MAX 등 차세대 단일통로기는 기존 기종보다 좌석당 운항비용(CASK)을 15~2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K는 연료·정

비 등 운항비 전반을 좌석·거리로 나눈 지표이다. 연료 효율 개선은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단거리 노선 비중이 큰 LCC는 이륙·상승 구간에서 연료 소모가 집중돼 절감 효과가 장거리 항공사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특히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순차적으로 도입 중인 B737-8(B737MAX 계열)은 기존 동급 기종 대비 약 2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체가 젊을수록 고장 가능성이 낮고 정비 주기가 길어 지연·결항과 정비비를 줄이며 하루 가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신형기의 장점이다. 국내 주요 LCC의 평균 기령은 11~13년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준수한 편이지만, 연료 효율과 운항 단가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각 사는 차세대 기체 중심으로 교체 속도를 높이며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최근 7번째 B737-8 구매기를 도입했다. 현재 43대를 운용중인 데 오는 2030년까지 평균 기령을 5년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스타항공도 지난 17일 19호기를 도입했다. 올해에만 B737-8 신조 5대를 추가해 평균 기령을 7년대로 낮췄고, 연내 20호기 인도가 예정돼 있다. 티웨이항공은 기령 20년 도래 전 교체 원칙을 유지하며, 내년부터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A330-900neo를 순차 도입해 인천 허브 중심의 장거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LCC들이 신기체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팬데믹 이전 계약분의 인도 시점이

도래한 영향도 있다. 코로나 이전 다수 항공사가 보잉·에어버스에 20~50대 규모의 기체를 주문했지만 팬데믹으로 인도가 지연됐다. 이후 여객 수요 회복과 함께 계약 이행이 재개된 것이다.

신형기 투입은 서비스 품질과 네트워크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신 기체는 소음과 진동이 적고 객실 인테리어·공기질이 개선돼 체감 품질이 높다. 여기에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의 탄소감축 정책인 CORSIA(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지속가능항공연료(SAF) 혼합 의무, EU 배출권거래제(ETS) 강화 등 규제가 확대되면서 고효율 기체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혜은 기자



롯데호텔 제주에 마련한 ‘코웨이 X 풀빌라 스위트 객실’ 전경.

‘코웨이X풀빌라 스위트’

숙박할인 등 혜택 강화

롯데호텔 제주서 제휴 객실 마련

코웨이가 롯데호텔 제주에 코웨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코웨이 X 풀빌라 스위트’ 브랜드 제휴 객실을 마련하고 제휴 사업과 고객 혜택을 확대한다.

26일 코웨이에 따르면 롯데호텔과의 제휴 객실은 롯데호텔 서울, L7 해운대 바이롯데, 롯데호텔앤리조트 감해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한 공간이다.

제주 롯데호텔은 기존과 달리 ‘코웨이 X 풀빌라 스위트’ 제휴 객실로 운영한다. 객실 내에 비렉스 매트리스와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코웨이 제품을 함께 비치한 것이 특징이다. 투숙객은 코웨이의 프리미엄 제품을 경험하며 차별화된 휴식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코웨이는 이번 제휴를 통해 ‘코웨이 멤버스클럽’ 혜택도 확대했다. 코웨이 고객 누구나 롯데호텔 제주 객실을 최대 18%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 이용 시 최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완성형 SAV’… 스포티함에 품격을 더하다

〈스포츠엑티비티차〉



자동차 시승기

BMW X3 M50 xDrive

정지 후 4.6초면 시속 100km 도달
398마력·59.1kg·m로 폭발적 성능

4세대로 돌아온 BMW X3 M50 xDrive(M50)는 ‘스포츠엑티비티차(SAV)’의 본질을 다시 썼다. 스포티함과 안락함, 고급감과 실용성을 모두 잡으면서 BMW가 추구한 ‘완벽한 균형’이 이번 차에서 완성된다.

외관은 이전보다 길고 넓어진 길이 4755mm, 너비 1920mm, 높이 1660mm로 안정감 있는 비율과 매끈한 선 처리로 날렵한 실루엣을 뽐낸다. 대형 수직 키드니 그릴에는 ‘아이코닉 글로우’ 조명이 적용돼 존재감을 높였고 화살촉 모양의 주간주행등(DRL)과 T자형 리어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완성했다.

실내는 BMW 특유의 운전자 중심 구조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통합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시야를 한눈에 모으고, 하단의 ‘인터

랙션 스마트 바’ 조명이 주행 상황과 위험을 색으로 표현한다. 버튼은 최소화하고 터치 중심의 UI로 전환됐지만, 직관성은 그대로다. M 전용 사이드미러, 4개의 배기구, 21인치 휠 등 고성능 모델만의 정체성도 확실하다.

M50은 3.0 l 직렬 6기통 트윈파워워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했다.

최고출력 398마력, 최대토크 59.1kg·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6초. 스펙이 수치로 증명하듯, 응답성과 여유가 차원을 달리한다.

기본형 BMW X3 20 xDrive는 2.0 l 4기통 트윈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최고출력 190마



BMW X3 M50 xDrive 외관 모습. /이승용 기자

력, 최대토크 31.6kg·m를 낸다. 복합연비 10.9km/l로 효율성 중심의 세팅이다. 반면 M50은 출력이 두 배 이상 높고, 복합효율 10.6km/l로 성능 대비 효율성까지 끌어올렸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네이버·카카오, APEC 방문객 위한 지도·교통 서비스 지원

다국어 버전 네이버 지도 제공
AI 추천 통해 장소 검색 편의성 ↑
카카오, 무료 순환 셔틀버스 운영
카카오내비 통해 교통안내 지원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이가 각자의 사업 역량을 활용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APEC 기간 경주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경주의 다양한 유적지와 관광지를 손쉽게 방문하고 지역 상점을 이용하며 경주의 문화와 특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버전의 네이버지도를 통해 경주 황리단길에 위치한 식당, 카페, 공방 등 30여 개의 지역 상점을 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4일 경북 경주역 인근에 APEC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APEC 정상회의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 개최된다.

/뉴스시스

개한다. 황리단길을 비롯한 경주의 숨은 맛집과 골목을 소개하는 클럽(숯품·짧은 영상) 챌린지도 진행한다.

네이버지도에는 랜드마크(상징물)를 3차원으로 구현한 플라잉뷰 3D 기능이 도입돼 첨성대, 경주유적역사지구 등 경주 유적지 주변 지역을 더 현실감 있고

입체감 있게 살펴볼 수 있다. 또 경주 지역명을 검색하면 지금 이 지역 인기 장소, 추천 맛집, 카페, 액티비티 등을 인공지능(AI)으로 추천해 주는 발견피드를 통해 이용자의 장소 검색 편의를 높인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그룹 계열

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종합적인 교통 서비스를 지원한다. 회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서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카카오내비를 통해 도로 혼잡 사전 예고, 우회경로 등 교통 안내를 지원한다.

총 12대의 44인승 순환 셔틀버스는 오는 11월 1일까지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 투입된다. 버스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경주시 내 제2동궁원편과 엑스포공원동편 2개의 순환 노선으로 운영된다.

경주시 일대 권역의 지·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내비를 통한 교통 안내 지원에도 나선다. 차량 자율2부제 시행과 도로 혼잡 사전 예고, 교통량 분산을 위한 실시간 도로 우회 교통정보, 방문관광단지 방문 차량 주차장 안내 등을 제공한다.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장이 위치한 보문단지 일대에 일부 시내버스 노선이 임시로 우회 운영되는 만큼

카카오버스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도 방한 외국인의 활용도가 높은 지도 서비스 등을 알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맵(지도)은 검색, 장소, 길 찾기 등 서비스 전반에 영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번역 품질 개선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부분들 위주로 선제적으로 (기능)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는 이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PEC 정상회의의 주관 중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 포럼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또 APEC 기간 경주 황리단길 현장을 찾아 지역 사업자를 만나고 로컬(지역)이 가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AWS 장애에 국산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국내 클라우드 직접피해 크지 않아
백업·이중화 적용으로 안정적 운용
멀티 클라우드 수요 증가 전망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핵심 리전의 대규모 장애로 전 세계 주요 서비스가 마비되는 ‘클라우드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국내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멀티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하며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지난 20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일어난 AWS 서버 장애가 고객사의 핵심 서비스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으며, 국산 클라우드로의 전환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급변 AWS 서비스 불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SK AX 관계자는 “당사 및 고객사의 주요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일부 로그인 등 부가 기능에서 일시적인 지연이 있었으

나, 서비스 가용성과 운영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AWS의 클라우드 오류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산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포함한 고객사의 별도 문의나 요청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NHN클라우드 역시 “이번 사태에 당사의 고객사와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받은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인 삼성SDS도 “AWS 사고와 관련해 크게 보고된 건은 없다”고 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서비스 중단 피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조했다. SK AX는 “글로벌 클라우드 운영 시 장애에 대비한 즉시 공유 체계와 기술적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며 “상당수 고객들의 핵심 서비스는 백업과 이중화 적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인 NHN클라우드도 기술 지원 전문가인 TAM(전담 기술 관리자)이 대응을 돕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서비스 영향도를 3단계로 구분해 긴밀히 대처하며, 프리미엄

서포트의 경우 최소 15분 이내에 빠른 응답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장애 조치 보고서까지 제공하며 선제적인 대비와 향상된 운영 환경을 구현한다고 NHN클라우드 측은 덧붙였다.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기업(MSP)인 LG CNS는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시스템 운영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관제하며, 이상 징후 포착 시 CSP사에 즉시 알리고 조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CSP 및 MSP 기업인 삼성SDS는 빠른 복구, 클라우드 이중화 작업, 백업 등으로 서비스 장애에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AWS 서비스 먹통 사건을 계기로 하나의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멀티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HN클라우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혼합 활용하는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김형정 기자 hjk10

LG U+, 금오공대 캠퍼스에 오픈랜 실증단지 확대 구축

삼성전자, 이노와이어리스 등 참여

LG유플러스는 금오공대, 삼지전자와 협력해 실제 상용망 환경에서 오픈랜의 완성도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단지를 확대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오픈랜은 개방형 인터페이스와 상호 운용성에 기반해 설계된 무선 접속망으로, 기존 폐쇄형 네트워크의 한계를 벗어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5G·6G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확대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



LG유플러스 임직원과 금오공대 학생들이 구축된 오픈랜 장비를 실증하는 모습. /LG유플러스

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국책과제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와 금

오공대, 삼지전자 외에도 계측기 전문업체 이노와이어리스가 참여해 통신사업자·장비 제조사·지역 대학이 함께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현했다.

LG유플러스와 협력사는 금오공대 구 미캠퍼스 내 모든 건물에 오픈랜 무선장치(O-RU)를 확대 설치했다. 지난해 본관, 도서관, 실습관 등 일부 건물에 한정해 구축했던 인빌딩 장비를 올해 캠퍼스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오픈랜 기반 상용망 환경을 완성했다.

/김서현 기자 seoh@

AI 챗봇, 수익 위해 ‘성인용 콘텐츠’ 개방

과몰입·의존 문제 논란 확산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성인용 콘텐츠 개방에 나서고 있다. 이미 캐릭터AI(CharacterAI), 제타(ZETA) 등 캐릭터 기반 챗봇의 과몰입·의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이 같은 행보가 이어지자, 해외에서는 관련 조사와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용자 중독, 개인정보 유출, 미성년자 노출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전에 규제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올해 12월부터 성인인증 시 에로타카(성애물) 등 더 많은 콘텐츠를 허용할 것”이라며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보다 앞서 일론 머스크의 xAI는 이미 그록(GROK)에 ‘섹시 모드(Sexy Mode)’를 도입했다. 또 올해 출시된 ‘컴패니언 모드’ 캐릭터 ‘애니(Ani)’는 이용자와 감정 교류를 나누고 친밀도에 따라란 제리 차림으로 변신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록은 관련 기능 도입 후 점유율 성장을 보였다.

메타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탑재된 AI(한국 제외)에 성인용 대화를 허용하는 등 빅테크들이 AI의 정서적 교감 기능이 앱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점을 노리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빅테크의 행보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AI 과몰입’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캐터랩의 ‘제타AI’가 대표적이다. 지난 6월 데이터에 따르면, 제타AI는 월 이용자 수(304만 명)에서 챗GPT(1844만 명)에 밀리지만, 월간 총 사용 시간은 5248만 시간으로 챗GPT(4254만 시간)를 압도했다. 가입자의 90%가 10~20대다.

문제는 ‘너무 높은 몰입도’다. 생생한 묘사와 현실감 있는 말투에 이용자들은 현실 도피와 과도한 의존 성향을 보인

다. 육아카페 등에는 “딸이 친구 대신 AI와 일상을 공유하고 연애 상담을 한다”는 부모들의 걱정도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로, 제타AI의 캐릭터 다수는 욕설이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마약, 자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소아성애, 원조교제 콘셉트의 캐릭터도 존재했다. ‘엔리밋 모드’는 부모 휴대폰 문자 인증 한 번이면 검열이 최소화돼 사실상 미성년자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해외에서는 과몰입이 비극적인 사고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14세 청소년이 AI 챗봇 ‘캐릭터.AI’와 대화에 몰입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해, 개발사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AI 챗봇으로 인한 자살 사건과 성애물 문제가 확산하자 해외 정부와 의회는 즉각 입법 규제에 나섰다.

미국 의회에서는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성년자의 ‘성적 컴패니언’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콘텐츠 제공 시 기업과 CEO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GUARD(가드)법’ 발의를 예고했다. 캘리포니아주는 AI 챗봇 운영사에 자살·자해 관련 콘텐츠 방지 프로토콜을 의무화하는 법안(SB 243)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오픈AI, xAI, 메타, 캐릭터테크놀로지 등 7개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AI가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다른 국가들도 강경하다. 이탈리아는 맞춤형 AI ‘레플리카(Replica)’가 암살 계획 등 범죄에 악용되자 사용을 금지했으며, 중국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와 중독 문제를 일으킨 AI 채팅앱 개발사에 법적 제재를 가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AI 챗봇은 어떤 모델이든 이용자가 계속해서 채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게 제1목표”라면서 “자극적인 성적 콘텐츠가 허용된 AI 챗봇은 그렇지 않은 챗봇보다 더 극단적인 채팅을 내놓을 확률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서현 기자

등락폭 커진 코스피… “반도체 중심 저평가 종목 매수 기회”

이달 일평균 일중 변동률 1.81%
한미 무역협상 타결 등 변수 산적
“변동성을 즐기는 전략 세워야”

‘주식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학 개미’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식을 사자니 널뛰는 장이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벼락 거지’가 될까 걱정이다. 국내 증시는 더 오를 수 있을까. 국내 증권사 전문가들에게 그 답을 들어봤다.

이들은 APEC을 전후 글로벌 증시를 ‘변동성’이란 한 단어로 요약했다. 호재가 나오면 투자심리를 회복해 반짝 상승했다가 악재가 터지면 취침하는 흐름이 반복될 것이란 설명이다.

◆ APEC 등 변수많은 시장 변동성 ↑

코스피 하루 등락이 심해지고 있다. 이달(10월 1일~20일) 들어코스피의 일평균 일중 변동률은 1.86%로 2021년 2월(2.03%) 이후 4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중 최고가와 최저가 간 격차가 111.25포인트에 이르렀던 지난 14일에는 일중 변동률이 3.10%까지 치



ChatGPT로 생성한 ‘사천피(코스피 4000포인트)를 앞둔 코스피’ 이미지.

솟아 작년 8월 7일(3.29%)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에도 2% 안팎의 일중 변동률을 유지 중이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향후 코스피 방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이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24일 기준 VKOSPI는 전일 대비 2.15% 뛸 31.29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20.62) 대비로는 51.75% 오른 수치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변동성이 큰 흐름

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에도 3500억달러 투자 우려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협상 결과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안정 여부가 외국인 수급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또한 성사 가능성이 높지만, 선반영된 협상 기대가 우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을 짓누를 변수는 여럿 있다. AP EC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의 방한, 한미 무역협상과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 등이 남아 있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은 기준 금리 결정 등 글로벌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 “변동성에 대한 고민 필요한 시점”

시장 전문가들은 ‘변동성을 즐기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평가 종목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했다.

정 연구원은 “다음 주 이벤트 확인과 정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급등 자산의 차익 실현 움직임 관측되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주도주 차익 실현과 동시에 저평가 업종 등으로 수급 이동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찬 iM증권 연구원은 “조강력한 10월 코스피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 국면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반도체 강세, 한미 협상 기대감이 증시 견인했으나 강세를 보여왔던 반도체에서는 일부 외국인투자자의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고, 자산 부양 효과의 부작용도 느껴지는 만큼 변동성 고민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주를 관심 종목으로 꼽았다. AI(인공지능)발 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기)을 타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2위(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업이 연일 질주하는 가운데, 24일 삼성전자(586조440억원), SK하이닉스(371조2810억원), 삼성전자우(63조7280억원)의 합산 시가총액은 1021조530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증가분은 전년 대비 각각 28조원, 22조원씩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38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익 증가 기여의 55% 이상이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혹평을 남겼던 모건스탠리도 24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1만1000원에서 12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48만원에서 57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 10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4% 올린 지 2주 만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감원, 가상자산 ‘분 단위’ 감시…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초단기 거래 분석 알고리즘 개발 중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자동 적발

금융감독원이 주로 일 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2억원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도 연내에 증설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적발해준다.

금감원은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주로 거래일 단위로 감시해왔다.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경우 짧으면 10분 이내에도 시세조종부터 차익 실현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에서 이상거래를 적출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있지만 보안 등의 측면에서 감독 당국이 직접 모니터링·분석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0개가 넘는 종목

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다 보니 초단기로 이뤄지는 매매 패턴을 인력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이 국회 정부위원회 이현승 의원의 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이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했고 밝힌 한 시세조종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

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모두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는 수익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이 외에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이른바 ‘경주마’ 수법, 거래소의 거래유 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가두리’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율 규제 역할을 담당할 법정 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투자증권, 함양군 마을공동체 지원

NH투자증권이 경상남도 함양군 마을공동체를 찾아 냉장고 40대를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왼쪽부터)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 이재열 NH투자증권 동부본부장, 진병영 함양군수, 정영철 경남농협 경영본부부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Super365’ 자산 15조 돌파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메리츠증권은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Super365’ 예탁자산이 15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완전 제로(0)’ 혜택을 내세운 Super365는 2026년 12월 말까지 국내·미국주식 매매와 달러 환전 등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Super365 자산 규모는 지난해 11월 18일 이벤트를 시작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16배가량 증가했다. 이달 20일 기준 예탁자산은 15조 1691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직전 영업일인 지난해 11월 15일(9336억원) 대비 16.2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계좌 고객 수도 2만5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해외자산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Super365 계좌 내 해외자산은 9조 1862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월간 약정금액은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금융사기 미리 대비하세요”… 계좌 개설·해외접속 등 간편 통제

금감원 Q&A

8가지 보안서비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같은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금융거래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부터 이체, 해외 접속까지 금융거래 전 과정을 단계별로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입니다. 한 번 신청만 해두시면 한국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새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이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체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입금이 완료되므로, 사기 피해를 인지했을 때 일정 시간 내에 이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설정해두시면 등록하신 PC나 스마트폰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하실 수 있고, 지정되지 않은 기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국내 IP가 아닌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여 해외 해커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인출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잦으신 분들은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를 통해 거래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줄여두시면 혹시 모를 해킹 등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될 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본인 명의의 전체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 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정윤 기자

나주, 차세대 전력망 중심으로 ‘우뚝’ K-그리드 창업·인재허브 본격 가동

기후부, K-그리드 밸리 조성논의
전력망 혁신·창업생태계 청사진
AI·VPP·ESS 기술 스타트업 주도
한에공, 오픈캠퍼스로 협업 확대
전력산업 새 성장축 본격 시동

정부가 차세대 전력망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전력공기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민간 에너지기업 등이 밀집한 나주시를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기지로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 전환정책실장, 에너지 스타트업, 대학 창업기업, 대기업,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과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력 신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245억 원이 반영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 분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부는 나주를 ‘에너지 혁신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블루버그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감도.

/한국에너지공대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 그리드 투자 규모는 2020년 2350억달러에서 2030년 3720억달러, 2050년에는 636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오픈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며,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스타트업, 국내외 대학이 협업하는 창업 허브로 구축한다. 특히 MIT·스탠퍼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의 에너지 창업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학 중심의 창업·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상발전소(VPP), 전력수요 관리기술,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

다. 또 전력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스타트업-투자가 연계행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인턴십 지원 필요성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대학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대학-기업 간 단단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中企 기술 무단사용… 카펫발레오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카펫발레오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이 제한한 기술 사양변경요청서(ECR)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펫발레오는 2019년경 수급사업자와의 대여도 방식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일부 도면 치수를 변경해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불량 개선을 위한 치수값(이른바 ‘제한값’)을 개발해 ECR 검토요청서 형태로 제출했으나, 카펫발레오는 해당 자료를 협의 없이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

값은 부품의 불량률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라며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이를 사용·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카펫발레오는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요구 목적·권리귀속관계 기재)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ECR을 기술자료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안을 무단 활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KPS, 우루과이 발전소 400억 연장계약

최대 392억 규모 추가 매출 기대

전력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서 400억 원 규모의 발전정비공사 연장계약을 따내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재차 입증했다.

26일 한전KPS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3일(한국 시간) 우루과이 전력청(UTE)과 ‘푼타 델 티그레(Punta del Tigre) 복합화력발전소 운전·정비(O&M)사업’의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는 최대 392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티그레 발전소는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 처음 진출한 상업적 사업지로, 건설 단계부터 상업운전, 주제어반 운전·정비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매출은 1400억 원에 달한다.

우루과이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티그레 발전소는 전력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첨두부하용(peak load) 발전소로 국가 전력망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KPS는 2020년 11월 상업운전 개시 이후 5년간 발전소 가동률 98% 이상



한전KPS는 지난 23일(한국 시간) 우루과이 전력청과 티그레 발전소 O&M사업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한전KPS

을 유지하며 현지 전력 시스템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 6월 진행된 발전소 최초의 대규모 정비를 무결점으로 완수해 우루과이 전력당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장계약은 이러한 기술력뿐 아니라 양국 간 신뢰와 외교적 협력의 결실 결과로 평가된다. 김흥연 사장은 2년 전 직접 우루과이를 방문해 전력청 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후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도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지원과 행정 협조를 제공해 계약 성사에 힘을 보탰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 구속 등 강제수사 활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아연 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조 내 질식 사고의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엄정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부·검찰·경찰이 합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필요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장장치 공사 중 발생했다.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하고,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유가족 장례 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사전협의’ 필수에 의무구매 무력화 공공기관, 5년간 9조6000억 미달

산단공·가스공사 등 이행 부진
‘사전협의’ 초과달성 통계 왜곡
경영평가 감점도 실효성 논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제도가 ‘사전협의’라는 편법 운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에서 법정 의무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총 102건, 미달 금액은 9조602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연도별 미달액은 ▲2019년 3조3739억 원 ▲2020년 1조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300억 원 ▲2023년 1조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2022년까지 4년 연속,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2021년까지 3년 연속 법정 비율에 미달했다.

더 큰 문제는 ‘사전협의’라는 예외 절차가 사실상 ‘필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관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해 법정 의무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낮춘 목표만 넘기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 처리된 기관은 최근 6년간 16곳에 달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4조21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없다. 경영평가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평균 0.03점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감점조치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필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KIAT, 中企에 공공기술 565건 이전

내달 3일 양재서 기술나눔 설명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에너지공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KIAT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090개 중소·중견기업이 총 3977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16개 에너지공기업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개 공

공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에너지, 융복합, ESG 등 분야의 총 565건의 기술이 이전 대상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핵심시스템 및 설비 101건 ▲에너지원별 발전 기술 90건 ▲검사·진단 및 유지보수 79건 ▲제어시스템 및 자동화 50건 등이다.

기술나눔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까지 기술나눔 온라인 신청시스템(www.tech-storm.io/techshare)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관련 특허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

또 KIAT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이해를 돕기 위해 11월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8층 엘가든홀)에서 ‘기술나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경북도, ‘초격차 APEC’ 위한 현장 최종점검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 후 8번 방문
경제전시장, 정상회의장 등 점검
이철우 “흔들림 없이 준비해 와
수송·숙박 등 9개 상황실 운영”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 현장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개막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김민석 총리는 23일 김해공항에서 VIP 입국 경로 등 항공시설을 점검한 뒤, 취임 이후 여덟 번째로 경주 APEC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제전시장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우양미술관 ▲정상 만찬장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현장도 둘러봤다.

경제전시장 안내를 맡은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전시장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끄는 미



(왼쪽부터)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최종점검을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 /경북도

레’라는 주제로 조성됐다”며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첨단미래산업관, 그리고 경북·울산 등 55개 기업이 참여한 지역기업관으로 구성돼 있다. APEC 기간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경제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전시장 맞은편의 K-테크 쇼케이스에는 삼성, 현대차, 메타 등 국내외 주요 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

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와 이철우 지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문화행사 개최 예정지인 우양미술관, 정상 만찬장으로 준비 중인 라한호텔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김민석 총리는 “외국 정상들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경호, 숙소, 음식, 공연 등 모든 면에서 감탄할 수 있

도록 초격차 APEC을 만들겠다”며 “이번 회의를 서울 중심의 외교에서 지방 중심의 문화·관광 외교로 확장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준비 과정이 결실을 맺는 시점인 만큼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최고의 APEC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정치 공백 속에서도 경북은 작년 6월 유치 이후 흔들림 없이 준비해 왔다”며 “총리께서 여덟 번이나 경주를 찾아 점검해주신 덕분에 APEC뿐 아니라 경북과 경주의 국제적 인지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경북도는 수송·숙박·의료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운영하며 행사 종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행사 이후에도 정상회의장과 전시장,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을 한 달간 그대로 보존해 국민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n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보배섬 국화축제’ 개막식

진도군은 ‘2025 보배섬 국화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27일 오후 5시 진도개테마파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배섬 국화축제의 주제는 ‘꽃빛 활짝! 별빛 반짝! 진도에서 만나게’이며, 진도개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군청, 철마공원, 향토문화회관이 형형색색의 국화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는 총 15만 본의 국화로 만든 국화작품이 전시되며, 특히 ‘희망을 찾아 떠나는 보배섬 진도 바다 여행’을 주제로 연출한 특별 전시 공간은 진도의 자연과 국화가 어우러진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완도군

맨발걷기 명소 ‘신지 명사십리’

전남 완도군의 신지 명사십리가 지난 ‘24년 10월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로 공식 선포되며 맨발 걷기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는 3.8km의 모래 해변과 더불어 1km의 황토길, 해송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맨발 걷기에 최적이다.

특히 모래 입자는 부드러운면서도 적당한 자극을 줘 지압 효과가 뛰어나며, 황토길은 흙의 온기와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신지 명사십리는 ‘공기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도시에 비해 50배 이상 풍부해 걸으며 기후 치유를 하기에 적합하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창원시-콜롬비아

글로벌 비즈센터 남미 확장 논의

창원시는 지난 24일 알레한드로 펠라에스 로드리게스 주한 콜롬비아 대사의 창원시 방문으로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과 글로벌 비즈센터 남미 거점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 14일 열린 창원시-콜롬비아 교류 간담회의 후속 행사로, 창원의 조선·전기 산업과 콜롬비아의 에너지·자원 산업을 잇는 실질 협력의 첫걸음이자 양국의 신뢰와 교류를 심화하는 자리가 됐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부산시

佛 파리 본따 안심 통학로 조성

부산시는 최근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15분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유관기관을 비롯해 학부모, 시민단체, 교통·교육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프랑스 파리와 같은 ▲차 없는 길 ▲보행자 전용 보도 ▲보행자 안심 도로, 3가지 사업유형을 통해 안심 통학로 조성에 나선다.

시는 사업 유형에 대한 구·군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나 학생·학부모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해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개청식

산림 바이오 산업 현재·미래 공유
산림 생명자원 고부가가치화 협력

경남도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개청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은 도내 산림 관련 단체, 임업인, 바이오 기업,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남 산림 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고 지역 내 산림 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행사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이미라 산림청 차장,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산림 관련 단체장, 산림 바이오 기업 대표 및 지역 임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개청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경남도 산림바이오센터는 2020년 산림청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사전 행정 절차 수행 등 4년간의 공사를 거쳐 문을 열게 됐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

APEC 글로벌 CEO ‘포항경주공항’ 이용

기업인 1700여명 이용 예정

포항경주공항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기간 동안 ‘글로벌 CEO 전용 공항’으로 운영된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존슨앤드존슨 호아킨 두아토 CEO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세계적인 기업인 1700여 명이 APEC 기간 중 전용기를 이용해 포항경주공항을 통해 입·출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28일부터 31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2025 APEC CEO Summit’ 참석차 경북 경주를 방문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포항경주공항을 임시 국제선 기능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 4월 APEC CEO Summit 추진단의 SK그룹 최태원 의장이 포항경주공항을 ‘글로벌 CEO 전용 공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면서,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포항경주공항,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 기관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점검 회의와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4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0여 명이 포항경주공항을 방문해, APEC 대비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입·출국장 내 CIQ 시설과 절차를 점검하는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포항시, 해양문화관광도시 도약 준비

APEC 정상회의 기념 불꽃쇼 등
外人 관광객에 해양관광 매력 알려

포항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첨단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대규모 해양축제와 K-컬처 마케팅을 통해 포항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류형 관광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9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APEC 2025 정상회의 기념 포항불꽃쇼’가 열린다. ‘그랜드 로보틱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화려한 불꽃과 드론 아트가 펼쳐지며, 내달 1일에는 송도해수욕장 해안선을 따라 낙화놀이와

미니 불꽃쇼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영일대해수욕장과 동빈문화창고에서는 철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이 열리고, 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에서는 ‘포항국제음악제’, 송도해수욕장에서는 ‘해양미식축제’ 등 다양한 해양문화행사가 잇달아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APEC 회원국 대표단과 외국 관광객에게 포항의 역동적 도시 이미지와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숙박플랫폼 ‘NO L’과 협업해 회의 기간 동안 포항 지역 펜션과 풀빌라 이용객에게 4만 원 상당의 숙박 쿠폰 1천 장을 선착순 제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제인 전용 크루즈 ‘플로팅 호텔’ 이용객을 위한 포항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해남 솔라시도 산업용지 부지 조성공사

전남도, AI 컴퓨팅센터 등 조성

전남도는 과기정통부의 국가AI(인공지능)컴퓨팅센터와 오픈AI·SK 인공지능 전용데이터센터 후보지로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산업용지의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부지 조성 공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솔라시도는 2005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지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 온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해남 구성지구·영암 삼호지구와 삼포지구 등 3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매립지여서 연약지반이 존재한다.

산업시설 용지 중 남쪽 데이터센터(예정 부지) 방향은 119만㎡ 중 78만㎡

가, 북쪽 골프장과 주택 단지 등의 계획부지는 278만㎡ 중 246만㎡가 연약지반이다. 해당 지역 연약지반 처리공사에는 267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전체부지가 아닌 사업이 예정된 부지를 우선으로 연약지반 처리 등의 부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민관 출자와 정책금융 대출 등을 합쳐 총 2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2028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부지 제공 시기를 내년 4월로 보고 해당 기간 내 부지 조성 기반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주요 유통기업 APEC 현장 참여 ‘K-상품’ 글로벌 수출 판로 개척

APEC 통해 글로벌 진출 가속화

롯데 신동빈 회장 CEO 서밋 참석
신세계 정용진 회장 현장 경영나서
CJ제일제당 K-푸드 제품 소개
아모레퍼시픽 한국 아름다움 전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국내 유통 기업들이 이번주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가 위상을 알리고 K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26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이번 APEC 기간 동안 유통 총수들은 직접 경주로 향해 경제 협력을 모색한다. AP EC 정상회의에는 식품, 패션, 이커머스 등 60여 개 기업이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로 참여한다.

우선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직접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하는 등 전사적인 지원에 나선다. 롯데호텔은 정상회의 오찬·만찬 등 주요 행사의 케이터링을 총괄하며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고, 롯데제이티비는 속소용 크루즈 2대를 운영해 방문객 편의를 돕는다. 롯데웰푸드, 롯



신라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버전. /홍심

데GRS, 롯데칠성음료 등 식품 계열사들은 홍보 부스를 통해 K-푸드를 선보인다. 김상현 롯데유통군 총괄대표, 이영준 롯데화학군 총괄대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등 주요 경영진도 APEC CEO 서밋의 주요 세션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참여한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정용진 회장과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CEO 서밋과 개막식 참석에 이어 대한상의와 함께 K상품 수출네트워킹 행사를 열어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등 주요 유통사 수장들도 관련 포럼 및 세션에 참여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유통 전략을 논의한다.

APEC 행사 기간 동안 K편의점의 K간식도 대거 선보여진다. 특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K푸드 고도화를 이뤄낸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경주 ‘부창제과’가 협력해 ‘K디저트 시리즈’를 단독 공개한다. 부창제과는 경주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로서 6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떡볶이, 김스낵, 핫반컵반, 맛밤 등을 선보인다. 파리바게뜨와 농심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적용한 이색 베이커리와 라면을 각각 내놓는다.

K뷰티 대표 기업들은 K문화 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펼친다. 에이피알, CJ올리브영 등이 APEC 공식 협찬사로 선정됐고, 아모레퍼시픽은 APEC CEO 서밋의 K뷰티&웰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력서리 코스메틱 브랜드더후를 알리며 ‘국산 명품 K뷰티’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 서울 뷰티 브랜드 헤라 등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에이피알은 ‘K뷰티테크’로 첨단 미래형 K뷰티법을 제시한다. 글로벌 누적 판매량 500만 대를 돌파한 뷰티 디바이스 ‘에이지알’ 제품을 협찬한다. CJ올리브영은 경주 황리단길의 특화 매장 ‘올리브영 경주황남점’을 거점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K쇼핑 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유통 업계 관계자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 속에서 글로벌 시장 공략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행사가 해외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청하 손종욱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본점 메사 9층 메인 로비 전경.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본점 확장 이전

메사빌딩 9층… 교육 인프라 강화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본점이 이달 27일 본점 인근 메사빌딩 9층에 새롭게 문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약 300평 규모로 기존보다 면적을 50% 확장하고, 아카데미의 역사와 신세계 헤리티지를 결합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아카데미는 일반 고객 대상 ‘스튜디오’와 VIP 고객 전용 ‘신세계 살롱’으로 나뉜다. 스튜디오는 쿂�, 아트, 웰니스 등 9개실로 구성됐으며, 업계 최초로 신설된 ‘신세계 살롱’은 명사

강연, 1대1 레슨 등이 가능한 차별화된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외국인, 인근 직장인, 시니어 등 다양한 고객층을 겨냥한 맞춤형 강좌를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K-컬처 강좌를 30% 늘리고, 직장인을 위한 저녁 강좌와 시니어를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K-헤리티지를 알리는 문화 확산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고객층의 여가와 취미 기회도 함께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백화점, 열흘간 ‘슈퍼 엘데이’ 축제

나이키 등 100여개 이상 브랜드 참여

롯데백화점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흘간 롯데백화점몰에서 하반기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 축제 ‘슈퍼 엘데이(Super L Day)’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행사를 올해는 참여 브랜드를 100개 이상으로 40% 늘리고 혜택을 강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슈퍼 브랜드 10개와 슈퍼 카테고리 10개를 매일 다르게 매칭

해 단독 혜택을 선보인다. 행사 첫날인 27일 나이키와 뷰티 상품군을 시작으로, 날짜별로 라코스테와 스포츠, 디올과 레저 등 다른 테마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겨울 인기 상품을 최대 76% 할인하는 슈퍼 딜 행사도 매일 열린다. 코오롱스 포츠 롱다운, 어그 슬리퍼, 알레르망 구스 이블, 설화수 스킨케어 세트 등 총 40개 상품을 행사 기간 중 매일 4개씩 최대 할인가로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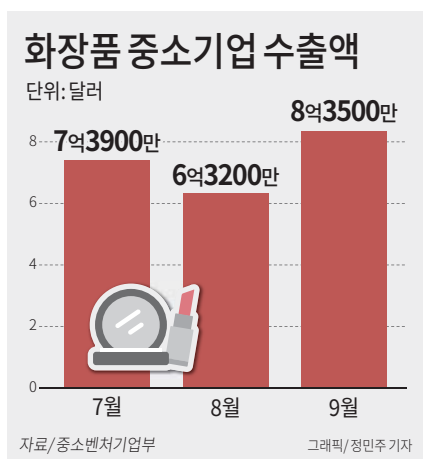
K-뷰티, 전 세계 확산… 中 小 수출액 ‘썰썰’

중기부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
화장품 中 小 수출 22억 弗 ‘역대 최대’

‘K-뷰티’를 이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의 소비국가가 200개국을 훌쩍 넘어섰다. 화장품은 분기별 최고 수출액 기록을 다시 썼다. ‘트럼프 관세’ 등 글로벌 무역 악재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2025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난 305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87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시 최고 기록을 썼다. 1~9월 누적 중소기업 수출액은 869억 달러(2022년)→816억 달러(2023년)→823억 달러(2024년)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전년 동기보다 2616개(3%) 늘어난 8만 9418개사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수출 효자 상품인 화장품은 단연 돋보였다. 화장품은 3분기에만 22억 1000만 달러를 수출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1위는 2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한 올해 2분기였다. 미국에만 4억 9000만 달러를 수출해 역시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였다.



화장품 대미 수출은 직전 분기에도 4억 2000만 달러를 올리는 등 올해 전체적으로도 미국 수출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폴란드(69.1% ↑), 영국(45.6% ↑), 아랍에미리트(UAE·43.1% ↑)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화장품 수출국(1~9월)도 올해 203개국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3년에는 185개국, 지난해에는 194개국이었다. 지구상에서 ‘Made in Korea’ 화장품을 쓰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는 셈이다.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올해 들어 9월까지 8922개사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화장품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올해 1월 70%를 넘어서 후 3분기에는 73.3%까지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 중에선 홍콩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3분기 수출이 늘었다. 1위 국가인 중국(47억 5000만 달러)의 경우 화장품, 동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나며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2위인 미국(46억 4000만 달러)도 상호관세 장벽을 뚫고 화장품(26.6% ↑)과 전력용기기(27.1% ↑) 등이 두 자릿수 증가했고, 품목 관세 대상인 철강(파생상품 포함·3.6% ↑), 알루미늄(〃·21.6% ↑), 자동차부품(11% ↑)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3분기 기준 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1~9월 누계 수출액은 8억 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영국(75.2% ↑), 네덜란드(14.9% ↑) 등 유럽 주요국의 온라인 수출이 두드러졌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K-뷰티는 미국을 넘어 폴란드, UAE 등 신흥시장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K-뷰티의 성공 사례를 다른 유망 소비재로 확산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미국 내 인디 브랜드 성공의 출발점이었던 온라인 수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 중으로,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CU “K-인기 스낵, 전과류로 즐기세요”

‘맛 콜라보’ 안주 카테고리 확장

편의점 CU가 K-인기 스낵의 맛을 견과류로 재해석한 안주류 3종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익숙한 맛을 새로운 형태로 즐기는 ‘맛 콜라보’ 트렌드를 안주 카테고리로 확장한 것이다.

이번 신제품은 ▲카라멜콘땅콩 ▲쥬러스 ▲꿀짜배기 스낵의 맛을 활용한 견과류 상품이다.

‘쥬러스 믹스너트’와 ‘카라멜땅콩 믹스너트’는 각각 쥬러스 시즈닝과 카라

멜 시즈닝을 땅콩, 아몬드 등 믹스너트에 더했으며, ‘꿀짜배기 믹스정과’는 아카시아 꿀로 호두, 피칸 등을 졸여냈다. CU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0일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카라멜땅콩 믹스너트’와 ‘쥬러스 믹스너트’는 2+1 행사와 함께, 해당 오리지널 스낵과 동반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꿀짜배기 믹스정과’는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꿀짜배기 스낵과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손종욱 기자

신제품

GS25 버터베어 호빵 2종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잘파세대 인기 캐릭터 버터베어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버터베어 딥초코호빵’과 ‘버터베어 솔티카라멜호빵’ 2종을 오는 30일 단독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버터베어 딥초코호빵’은 진한 딥초

코를 가득 채워 달콤함을 극대화했으며, ‘버터베어 솔티카라멜호빵’은 소금과 카라멜이 어우러진 단짠 조합이 특징이다.

상품 패키지에 버터베어가 호빵을 안고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각각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베이지와 빨간색 컬러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20종의 버터베어 랜덤셀이 동봉돼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셀트리온, ‘아일리아’ 특허 분쟁 마무리… 美 진출 본격화

FDA 품목허가 최종 획득
리제네론과 합의로 분쟁종결
2026년 美 출시 가능 확보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 본격
美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

셀트리온이 후속 신제품 전략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K바이오시밀러 입지를 강화한다.

2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아이덴젤트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지난 20일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와 특허 소송을 해결했다.

미국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인 아일리아를 보유하고 있다. 아일리아는 안과 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연간 매출 95억 달러를 거뒀다. 같은 기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만 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는 2024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셀트리온이 미국 제약 시장 진출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년 6월 미국, 2025년 5월 유럽에서 각각 아일리아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발맞춰 독점권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에 ‘제형 및 제조 공정’ 소송을 제기해 왔다.

해당 소송에는 글로벌 빅파마 암젠을 비롯해 바이오콘 바이오로직스, 마일란, 산도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암젠은 유일하게 승소해 2026년 미국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파블루 발매가 가능하다.

바이오콘 바이오로직스와 마일란도 지난 4월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와 합의를 도출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예사필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산도즈도 합의에 따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엔제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글로벌 경쟁 대열에 이름을 올리며 시장 확대에 나선다.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는 주사(바이알) 제형과 사전충전형 주사(PFS) 제형

두 종류다. 오리지널 의약품 아일리아가 미국에서 획득한 적응증 전체에서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신생혈관(습식) 연령 관련 황반변성, 망막정맥폐쇄에 따른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아이덴젤트의 동등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입증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셀트리온은 올해에만 미국 제품 포트폴리오에 아이덴젤트를 비롯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엡토즈마’, 골 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옵리클로’ 등 5개 제품을 추가하며 시장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점ую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치료제 영역과 영향력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추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동아제약

어린이 종합 영양제

‘챔큐비타시럽’ 선택

아연·비타민B군 4종 등 함유

동아제약은 어린이 종합 영양제 ‘챔큐비타시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챔큐비타시럽은 일반의약품으로 글루콘산아연, 비타민B군 4종, 베타인염산염 등이 처방됐다. 병중병후에 오는 체력저하 및 육체피로를 개선한다. 면역력 저하로 발생하는 구내염, 구각염, 설염, 등의 증상 완화에도 효과를 갖췄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글루콘산아연은 체내 흡수율이 높은 아연 성분으로 감기 증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능을 입증했다. 베타인염산염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질병 후 식욕 회복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애플망고 향이 더해졌다. 또 막대 형태로 개별 포장돼 휴대가 간편하며 복용이 편리하다.

/이청하 기자

도전과 혁신의 80년… ‘AI 신약개발로 100년 도약’

제약바이오협회, 창립 기념식
비전2030 선포·미래관 준공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첫걸음을 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았다. 협회는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0년사’를 편찬하며 도전과 혁신의 8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다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과 협회의 궤적을 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0년사’를 편찬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의 역사는 물론 협회의 발자취까지 총망라한다는 취지 하에 산업사와 협회사를 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산업계와 협회의 행보를 연대기순으로 기술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노연홍 협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로 기술했다.

산업사가 산업계의 도전과 분투, 혁신행보에 초점을 뒀다면, 협회사는 산업환경 변화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회의 대응과 활동 중심으로 서술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과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의 특별 대담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현주소 진단과 함께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및 방안 등 제약바이오강국을 향한 고민과 미래전략을 담았다.

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산업의 초석을 다진 선배 제약인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에 이어, 80년 역사와 미래비전을 담은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지난 80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선포식’에서는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이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선포를 진행했

다. 협회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K-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산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별관 ‘미래관’의 준공식이 진행됐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미래관은 1층 필로티 구조의 지상 4층, 389.57㎡(117.84평) 규모로 스마트사무실, AI신약연구원과 AI신약개발 자율실험실(SDL) 등이 자리를 잡았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기념사에서 “1945년 10월 광복의 혼란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첫걸음을 내디뎠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80년의 역사를 맞이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어린이 종합 영양제 ‘챔큐비타시럽’ /동아제약

애경

비타 로즈 클렌징 3종

엘로로즈 성분·보습 강화

애경산업은 클렌징 브랜드 포인트엔에서 ‘비타 로즈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비타 로즈 라인은 세안 단계별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 클렌징 패드, 세럼젤 팩 클렌저, 릿스 클렌징 폼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멀티 클렌징 패드는 양면 사용이 가능하다. 가로, 세로 격자 패턴의 엠보 면과 부드러운 면으로 설계해 메이크업을 지우거나 피부 결을 정리하는 등 다용도 기능을 갖췄다.

세럼젤 팩 클렌저는 유효 성분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점 형태의 제형을 처방했다. 세안 후 수분이 없는 얼굴에 제품을 도포한 뒤 1~2분 경과 후 미온수로 닦아내면 된다.

릿스 클렌징 폼은 밀도 높은 거품으로 피부 각질, 노폐물 등을 씻어낼 수 있다. 또 3종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 보습을 유지해 준다.

해당 제품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한 엘로로즈를 활용한 ‘비타 로즈 복합물’을 함유한다.

/이청하 기자

CGV, KBO 포스트시즌 평균 객석률 80% ↑

‘스크린X 라이브’ 응원 명소 급부상

CGV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진 ‘2025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SCREENX LIVE’가 평균 객석률 80%를 돌파하며, 대부분의 상영관이 매진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스트시즌 생중계는 SCREENX LIVE와 일반 2D 중계 등 두 가지 포맷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SCREENX LIVE가 관객들에게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다. SCREENX LIVE는 중앙 스크린과 좌·우 벽면까지 확장된 3면 영상과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통해 마치 경기장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선사

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 직관을 가지 못한 많은 야구 팬들이 극장을 찾으며 새로운 응원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2025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역시 SCREENX LIVE로 만나볼 수 있으며 예매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CGV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CJ CGV 전정현 콘텐츠운영팀장은 “CGV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SCREENX LIVE의 차별화된 몰입감이 야구 팬들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스트시즌 전 경기에서 높은 객석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한국시리즈에서도 팬들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응원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족초청행사 개최

임직원 가족 2600명 참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5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2025 가족초청행사’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가족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 가족들이 회사의 비전과 조직문화를 체험하며 이해하는 교류의 장으로, 올해는 임직원 및 가족 총 2600여 명이 참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실험실 및 사무공간을 방문하는 견학을 비롯해 퀴즈, 미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사내 정원을 배경으로 한 버스킹 공연과 가족과의 추억을 사진

으로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사의 성장은 임직원의 노력과 가족 분들의 성원이 함께한 결과”라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연수 전문은 “가족과 아이들에게 제 일터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 매우 뿌듯했고 특히 회사가 가족내 소통과 공감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

JUKEBOX MUSICAL

쇼 매스트 고 온

In 대학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쇼는 계속된다!



2025년 10월 30일(목) ~ 11월 30일(일) 대학로 업스테이지극장

홍서준 송하림 황인보 고혜미 이유선 윤토왕 손난희 이주훈 김도후 강동석 박수현 서유인 김혜상 김희선

총괄프로듀서 최대성 | 작/연출 최대성 | 드라마트루그 김동미 | 음악감독 최은지 | 음악작곡 이정현 | 안무감독 이규도

무대디자인 박단추 | 음향감독 박미리 | 조명감독 곽두환 | 영상디자인 유정임 | 무대제작 수 무대미술 | 조연출 이시훈 | 연출보조 우정인

제작 극단 쇼고(showgo) 극단 신명 | 기획 주식회사 아트컴퍼니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 NOL 티켓 | 문의 02-764-9102

본 공연은 서울특별시 '2025 서울형 창작극장' 선정극장에서 진행되어 대관료 할인을 지원받았습니다.



농식품부-한식진흥원 ‘한식 컨퍼런스’ 열어

전 세계 미식계 거장들이 한식의 미래 논의를 위해 서울에 모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오는 29일 서울 성북동 삼창각에서 '2025 한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적 F&B 전문가와 외식업계 관계자, 언론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여경협,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진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24~25일 이틀간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2025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여경협이 주관하는 올해 행사는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326만 여성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1박2일간 펼쳐졌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풀무원푸드앤컬처, 대전 국립현충원 묘역정화 봉사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10월 국군의 날을 기념해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풀무원푸드앤컬처



홈플러스, 전라지역 ‘나눔플러스 봉사활동’ 진행

홈플러스는 지난 24일 홈플러스 전주점 문화센터에서 전라지역 임직원과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나눔플러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홈플러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목표인 '다음세대를 위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홈플러스



콜마비엔에이치, 계룡산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2일 계룡산 국립공원 동학사지구 생태계교란 식물 서식지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콜마비엔에이치 임직원 25명과 계룡산 국립공원 직원 25명이 함께했다.

/콜마비엔에이치

김윤 “도전정신 발휘해 변화·혁신하는 삼양 만들자”

〈삼양홀딩스 회장〉

삼양그룹 창립 101주년 기념 ‘퍼포즈 워크 10.1 행사’ 열어
임직원 200여명 트레킹 진행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창립 101주년을 맞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발휘해 변화하고 혁신하는 삼양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삼양그룹은 지난 24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에서 ‘퍼포즈 워크(Purpose Walk) 10.1’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소명(Purpose)을 되새겼다고 26일 밝혔다.

삼양그룹은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생활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라는 기업소명을 공식 선포하며 그룹의 방향성을 재정립했다. 올해를 새로운 100년의 원년으로 삼고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이 ‘퍼포즈 워크 10.1’ 행사 오프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양홀딩스

를 담은 퍼포즈 내재화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윤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글로벌과 스페셜티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제품 차별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배터

리, 퍼스널 케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등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스페셜티 사업은 구체적인 마일스톤을 수립해 실행력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운전자본 최적화, 수익성 강화 등 현금 흐름 중심 경영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

‘LG스탠바이미’ 활용 아이디어 대전

LG전자 ‘스탠바이미 러버 챌린지’
100명 참가자, 아이디어 경쟁

LG전자가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 2’의 활용성을 알리기 위해 고객 참여형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LG전자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스탠바이미 러버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객들이 직접 스탠바이미 2를 활용한 다양한 사용 방식을 선보이는 이색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총 100명의 참가자들이 스탠바이미 2를 어깨에 메거나 눕히는 등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현장은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축제’ 분위기로 꾸며졌다. 현장 시민 투표와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수상자도 선정됐다. 대상은 자녀들과 함께 스탠바이미로 할로윈 파티룸을 꾸민 송병준 씨에게 돌아갔으며, ‘시선강탈상’은 스탠바이미를 활용해 자신의 골프 스윙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구민희 씨가



송병준 씨와 자녀들이 준비한 소품으로 스탠바이미 2를 이용한 할로윈 파티룸을 꾸민 모습.

/LG전자

차지했다.

스탠바이미 2는 화면부를 스탠드에서 손쉽게 분리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스크린으로, 27형 QHD 터치 디스플레이와 최대 4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했다.

정수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은 “스탠바이미 2가 단순한 제품을 넘어 고객의 삶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고객 경험 중심의 마케팅으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근로복지공,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4.2만개 사업자 대상 점검·안내

근로복지공단은 10월 27일~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가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간 동안 공단은 도소매, 음식점, 조선업 등 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병행한다. 또 공식 SNS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 창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도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이 지난 7월 서울 역삼역 인근에서 배달라이더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나누어 주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도 이어간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전자, 호주 고객만족어워드 최고상

‘스마트싱스’ 편의성 인정받아

삼성전자는 호주 소비자평가기관 파인더 주관 2025 고객만족어워드에서 인공지능(AI)과 맞춤형 기능을 통한 편리한 사용 경험, 우수한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사랑받는 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다양한 기기가 ‘스마트싱스’ 생태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 주요 가전 부문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최고의 성능’, ‘최고의 가치’, ‘가장 추천되는 브랜드’ 등 총 26개 부문에서 최고상을, 13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추가로 수상했다.

‘파인더’는 호주내 영향력 있는 소비자 평가 기관 중 하나로, 가전·통신·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 제품을 소비자 설문을 통해 평가해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이번 조사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삼성전자

는 호주 전역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이상 브랜드의 제품 혁신, 성능, 신뢰성, 가치, 사용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진행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호주 굿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도 TV ‘네오 QLED 8K’와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등 3개 제품이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비스포크 세탁기 제품이 호주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세탁 시간 절감과 에너지 효율을 인정받아 ‘최고 혁신상’을 받았으며, ‘삼성 OLED TV’가 반사 저감 기술을 인정받아 ‘우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희준 기자

공영홈쇼핑, 방송 인재양성에 장학금 기부

경상대·전남대에 1000만원씩 전달

공영홈쇼핑이 방송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26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장학금은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와 전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각 1000만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에도 경북대

학교와 제주대학교 미디어 관련 학과에 2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방송영상 분야 발전을 위한 장기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지역거점국립대의 방송 전문 인재들은 미래의 동료이자 홈쇼핑 꿈나무들”이라며,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방송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음

▲ 표석부씨 별세, 표억조·판조·상조·기조·순옥·예숙씨 부친상, 배선도·김성열(전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부장)씨 장인상

=26일, 창원시 성산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28일 오전 10시. 055-214-1900

전자책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 침해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TTS(Text-To-Speech)는 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으로 현재 전자책을 포함해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성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TTS 기능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콘텐츠의 경우에는 단행본, 전자책, 오디오북 등 그 제공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 설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소설 등의 경우(어문저작물)에도 콘텐츠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전자책)'과 '음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오디오북)'에 관해 별개로 권리 설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한 전자책 플랫폼(A사)이 전자책을 TTS 기능을 통해 읽어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일부 콘텐츠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B사)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화제가 됐다. 해당 소송은 올해 6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B사

의 승소)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해당 소송에서 B사는 자신이 대상 콘텐츠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A사의 서비스가 위 배타적발행권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A사는 ▲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오디오콘텐츠(디지털 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 A사는 TTS 기능을 제공할 뿐 직접 오디오콘텐츠를 복제·전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으로 항변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B사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도서를 오디오콘텐츠의 형태로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써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파일(wav)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A사의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대한 TTS 기능 제공이 B사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A사의 TTS 기능 작동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A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B사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 A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해 온 점, ▲ TTS 기능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역할은 복제 대상이 되는 도서를 지정해 A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TTS'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는 점 등에 기초해 오디오콘텐츠를 복제·전송하는 주체를 A사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A사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A사에 대해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서 대상 콘텐츠에 대해 TTS 기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침해정지청구 인용). 물론 이에 대해서는 B사가 상고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콘텐츠의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AI TTS 등)이 다른 권리자의 권리(배타적발행권 등)를 침해해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런칭 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몰비용 등의 추가적인 손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대형마트 옥죄더니 이제는 ‘살려달라’는 사회



김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최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파산 위기'에 몰렸다. 전국 곳곳의 매장이 폐점 수순을 밟자 인천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홈플러스 살리기'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한 시민들과 노동자, 상인들이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이러니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는 지역 상권의 '적'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결국 정치권이 만들어놓은 낡은 규제가 업계를 옥죄면서 스스로 시장의 기반을 허물고 있는 셈이다.

대형마트는 이미 수년째 인건비·전력비 등 고정비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 시장 급성장으로 소비자 발길이 줄고, 정부의 각종 규제는 발목을 붙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다.

최근 국회에는 다시 '공휴일 의무휴업'을 법으로 못박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평일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를 원상 복귀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제는 1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낡은 틀이다. 그 사이 유통 환경은 급변했다. 쿠팡, 네이버 등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한다. 대형마트의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형마트 3사의 연간 매출(약 37조원)을 모두 합쳐도 쿠팡 한 곳의 매출(약 40조원)에 못 미친다.

결국 '대형마트 쉬는 날'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보다 온라인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 후폭풍이다. 물론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는 사실상 사업 구조와 투자 방식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영향을 더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매출 부진과 점포 구조조정이 이어지자 이제는 "지역 상권이 죽는다"며 시민들이 정부의 구제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를 옥죄던 사회가, 정작 그 반자리를 체감하자 "없으면 안 된다"고 뒤늦게 외치는 형국이다.

지금 필요한 건 유통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시대착오적 규제는 폐지해야 또 다른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tree683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7일 (음 9월 7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바다가 길을 막아 오도 가지도 못한다. 48년생 자식에게 기업을 운영하게 하려면 공부 시켜야 한다. 60년생 조직에서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 72년생 피곤한 일이 행복으로 여겨진다. 84년생 담배와 안정하지 않도록.



소

37년생 큰 부자는 절대로 인생하지 않다. 49년생 재물로 남에게 관대하면 돈이 내게로 오면서 존경을 받는다. 61년생 연장근무로 효과를. 73년생 결정 장애처럼 종일 우유부단. 85년생 해운업이나 해산을 관련 일은 길신하다.



호랑이

38년생 지인에게 돈 부탁해야 소용없다. 50년생 퇴근 후 일찍 귀가를. 62년생 형제끼리 누가 잘하나를 따지면 무엇을 하겠는가. 74년생 공 같은 아내가 여우같은 마누라보다 낫다. 86년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오복의 하나.



토끼

39년생 목인 기도를 해보라 일이 해결된다. 51년생 상술도 능력이다. 63년생 밀리는 도로이니 아침 일찍 나사라. 75년생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온전히 하는 요소. 87년생 친구인 시어머니들이 만나면 패심한 머느리만 있다.



용

40년생 재운이 상승이니 운수대길이다. 52년생 지지부진한 답답함만 있다. 64년생 소개팅이 있는 날. 76년생 평소 예의 바른 조직에서는 조직의 뜻을 따르자. 88년생 치매 증상이 인품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보듬은 필수.



뱀

41년생 말의 흉수 시절 조심은 하자. 53년생 결혼이 필수시대였으나 혼자 가는 길. 65년생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77년생 선택과 결정은 적시성도 중요하니 때를 놓치지 않도록. 89년생 체력으로 부의 불평등을 스스로 벗어나야.



말

42년생 재물요구가 많은 자녀로 골치가 아플 것. 54년생 동료가 이기적이긴 하나 영업력은 우수. 66년생 맡은 일을 매듭짓는다. 78년생 어디서나 인간 세상의 원칙은 있는 법. 90년생 상대에게 위협을 받으려는 태도는 미움을 사게 되니.



양

43년생 배우자가 있으나 사돈과 박하다. 55년생 너무 앞서면 꽃잎이 피기도 전에 스러진다. 67년생 적법한 부동산을 사들여. 79년생 회사의 지시를 좇아 일하는 데 불만이 왜 많은 것인지. 91년생 불화를 겪지 않으려면 자체를 성찰하라.



원숭이

44년생 작은 것에도 긍정적이니 재물과 연관된다. 56년생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않도록. 68년생 능력이 남보다 열등해도 고인하지 말자. 80년생 남에게는 불공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은. 92년생 주말 낚시는 귀신들린듯 피곤을 가져온다.



닭

45년생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니 남 얘기로 씹지 말도록. 57년생 의사소통으로 일을 해결해야. 69년생 경청하면 일이 해결. 81년생 화를 자제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져보자. 93년생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



개

46년생 나이 보다 늙지는 않았으나 힘들다. 58년생 싸우다가 주먹질이 오가지 않도록. 70년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찾는 것은 비현실. 82년생 구슬이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서의 판단이다. 94년생 미운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돼지

47년생 증여를 해줬으니 축복이자 복덕이다. 59년생 자기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71년생 나도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83년생 이제부터는 지난 일을 근심하지 마라. 95년생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도 강이 있듯 물은 소중하다.

김상회의四季

기도 효험 좋은 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것이다. 선조들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할 것 없이 지극한 기도를 가리지 않았다. 그만큼 산다는 일의 어려움과 굴곡이 많았던 것이리라. 특히 일 년 중 이맘때 즉 추석을 보내고 난 후 음력 구월과 시월은 기도가 될 때마다 언급했듯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기약하며 하늘에 바램을 고하는 시기가 된다. 하늘 문이 열리는 시기로서 한민족의 나라를 건국한 시조 단군이 하늘에 고하고 나라를 연 시원을 정해 개천절이라 명명한 시기이니 보통 사람들 역시 직접 하늘에 고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오천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인간의 힘이 닿지 못하는 수승한 기운을 지닌 천지자연과 신명에 대한 경외와 소원하는 바를 전하기에 최적의 때였다.

소소하게 가정의 복덕과 재수발원을 소원하며 천치신명께 고사를 올리는 상달 고사 외에도 음력 시월 중에 드는 경술일(庚戌日) 기도는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필자의 스승님에게서 온 믿음이 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입동과 소설 언저리에 경술일에는 반드시 경술(庚戌) 철야기도를 신도들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음력 11월이 되는 대설(大雪)이전에 드는 경술일은 시월 상달의 기운이 가장 극대화되는 날로 여겨져 기도발이 좋은 날이라고 했고 따라서 이날 만큼은 나를 위하든 남을 위하든 특히 나라의 안녕과 민생의 평안함을 우선으로 꼭 기도를 올린 것이다. 이날은 기운이 워낙 강하니 되도록 합동 기도의 형식을 취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조상님들 제사도 안 지내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구시대 산물이라고 무시하곤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2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인지역대학 총장들, 지역혁신 협력 논의

인하대, 34개교 총장협의회 개최
고등교육 발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인지역 대학 총장들이 모여 지역혁신 중심의 고등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24일 정석학술정보관에서 경인지역대학 총장협의회를 개최해 지역혁신 중심의 고등교육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26일 인하대에 따르면, 이번 정기총회는 주관대학인 인하대와 회장교인 수원대를 포함해 총 34개 회원교의 총장과 총장 위임 참석자가 모두 함께 참여했다.

총장단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대학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지자체·대학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임경숙 경인대학총장협의회 회장(수원대 총장)은 “인천과 경기지역 대학이 대한민국 고등교육 혁신의 중심이 될 것

이라고 믿는다”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연대와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학의 혁신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지역대학과의 연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차명돈 교육환경개선본부장이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립대학 학교복합시설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총장단은 대학 복합시설 활용 방안, 고등교육 정책 개선 과제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주관대학으로 총장단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소개와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명우 총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을 위해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경인지역 대학이 머리를 맞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안성시,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

민자적격성 통과... 2030년 착공

안성시가 숙원사업이던 ‘화성~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안성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해당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고속도로 건설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기대효과 등을 직접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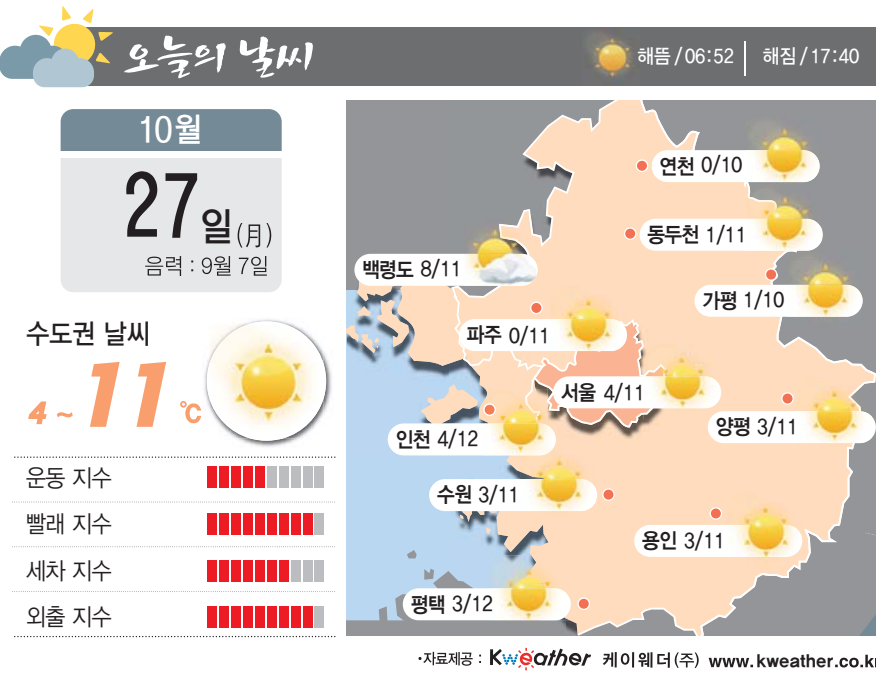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안성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숙원사업으로,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윤종균 국회의원과 김보라 시장의 긴밀한 협력과 꾸준

한 소통이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되었고, 그 결과 민자적격성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출발해 평택과 용인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약 45.3km, 왕복 4~6차로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안성 북부권의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산업 입지와 생활 편의성이 강화되며 지역 균형발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용인 남사·원삼, 평택, 이천 등 인접 도시와의 광역 연계가 강화되어, 안성이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과 물류 클러스터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상위권 ‘의대 쏠림’ 완화되나 과기원 수시 지원 5년 새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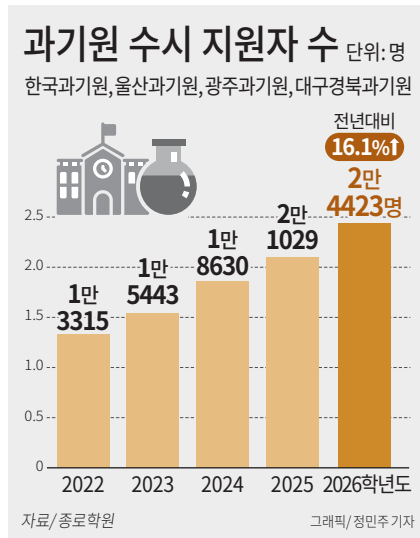
4개 과기원 수시지원 2만4423명
경쟁률 14.14대 1... 5년 중 ‘최고’
의약학대, 전년대비 21.9% 급감
이공계 육성정책, 산업경기 영향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전국 4개 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지원자 수가 최근 5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의약학계열은 최저치를 보이며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이공계 선호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그간 이어진 ‘의대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되는 양상이다.

26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4개 과기원 수시 지원자는 총 2만4423명으로 전년(2만1029명)보다 3394명(16.1%)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1만3315명 ▲2023학년도 1만5443명 ▲2024학년도 1만8630명 ▲2025학년도 2만1029명 ▲2026학년도 2만4423명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원 491명(7.6%) ▲울산과학기술원 1354명(20.6%) ▲광주과학기술원 377명(12.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72명(23.4%)이 각각 전년대비



늘었다.

경쟁률 역시 14.14대1로 ▲2022학년도 8.77대1 ▲2023학년도 9.47대1 ▲2024학년도 10.93대1 ▲2025학년도 12.30대1의 경쟁률을 보인 최근 5년 중 최고였다.

반면 전국 109개 의약학대(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의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11만2364명으로, 전년(14만3935명) 대비 21.9% 급감하며 최근 5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의대 지원자는 29.2%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13만8267명 ▲2023학년도 12만7840명 ▲2024학년도 12만3905명 ▲2025학년도 14만3935명 ▲2026학년도 11만2364명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중도탈락자 추이에서도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4개 과기원의 2024년 중도탈락자는 243명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의약학대의 중도탈락자는 ▲2020년 382명 ▲2021년 457명 ▲2022년 587명 ▲2023년 752명에서 2024년 1119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이자 사실상 역대 최고치다.

의대 모집정원이 약 1500명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약학계열 전반의 지원자 급감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반면 과기원과 대기업계약학과, AI학과 등 이공계 중심 학과의 지원자 증가는 정부의 이공계 집중육성정책과 반도체·AI 산업 호조세에 대한 수험생들의 민감한 반응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최근 수시 지원에서 의약학계열 쏠림이 완화되고 이공계 중심 학과로 관심이 이동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라며 “정부의 이공계 육성정책과 산업경기 흐름에 따라 수험생의 선택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몰림’ 현상이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취임 1주년’ 정근식, 미래 교육 논의한다

서울교육청, 협력교육 성과발표회
학생·교사·시민 등 500인 대토론회
2026년 교육정책 방향 등 비전 공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추진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주요 성과 발표회와 500인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서울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규모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27일 오후 3시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1년, 약속과 실천에서 비전으로’를 주제로 실천성과 보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약추진위원회, 공약평가단,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관계자, 학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교육감 공약사업의 추진과정을 되짚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1년 성과를 발표하고, 공약추진위원장이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토크콘서트 형식의 토론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지난 23일 저력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 진행돼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과 정책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일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날인 28일 오후 3시 신도림 웨딩시티 그랜드볼룸에서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1년, 함께 만드는 미래 500인 대토론회’가 열린다.

학생·교사·학부모·시민 등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2026년 서울교육의 비전과 핵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근식 교육감의 기조강연을 시작

으로 학생참여위원회·학생참여단·학부모동행단·교사정책동행단·시민참여단 등 각 주체들이 현장의 변화를 공유한다.

특히 ▲학생자치 활성화 ▲학부모의 정책 참여 ▲교원의 협력문화 확산 ▲시민의 정책 제안 및 참여 확대 등 협력교육의 구체적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50개 분임으로 나뉘어 ‘2026년 서울교육 정책 및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논의 주제는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안착 ▲교육소외계층 지원 ▲AI·디지털교육 활성화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학교자치 및 거버넌스 강화 ▲학생 마음건강 회복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서울교육 홍보 및 시민소통 강화 등 10대 핵심 과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성과 보고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해 서울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며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함께 꿈꾸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아일랜드 대선에서 좌파 캐서린 코널리(68) 10대 대통령 당선
▲이란 총리 “미 정부와 교류할 긍정적인 기반 전혀 없어”

/사진 뉴스1

▲트럼프·다카이치 첫 통화...“美日 동맹 위상 강화”
▲日신형 우주 수송선 HTV-X 발사 성공...ISS에 물자 운반

▲한·중남미 미래 경제협력 강화...“비즈니스 서밋” 개막
▲트럼프 “캐나다에 10% 추가 관세”...‘反관세 광고’에 발끈



주요 유동기업
APEC 참여
수출판로 개척
L1

metro®

Life

셀트리온
특허분쟁 마무리
美시장 입지 강화
L2



“안정보다 마음 울리는 도전… 도시 깨우는 브랜드 만들었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필모리스 글로벌 기여운 대표

아침이 밝아오기 전, 필모리스 글로벌(Feel Morys Global)의 기여운 대표는 명상으로 하루를 연다. 핸드폰을 열기 전 마음을 다스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의 루틴이다.

국민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친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하며 정책 데이터 분석 경험을 쌓았다. 이후 LG 경영연구원·LINE Plus를 거쳤으며, 지난해에는 글로벌 시야를 넓히기 위해 프랑스와 싱가포르 캠퍼스를 오가는 경영대학원 INSEAD 비즈니스스쿨 MBA 과정에 진학, 올해 6월 졸업했다. 그리고 지난 9월 싱가포르에 ‘필모리스 글로벌’을 창업하며 본격적인 경영자의 길에 들어섰다. 부친이 1993년에 설립한 스포츠 선글라스 제조업체 ‘모리스레포츠’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것.

◆안정보다는 의미있는 도전 선택

기 대표는 INSEAD에서 1년을 보내면서 창업을 결심했다. 그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방갈로에서 유니콘 기업들과 벤처캐피탈을 직접 만나며 ‘성장 중심(growth-driven)’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했고, 한국에서 느꼈던 안정 추구형 기업형태와 다른 그들의 사고방식에 매료됐다.

그는 “지금이나 아니라면 하지 못할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봤을때 창업 만큼 저의 마음을 뛰게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며 “MBA 이전엔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정책 전문가를 꿈꿨지만, 결국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직접 만드는 경험’이었다. 안정만 추구하는 삶보다 의미 있는 도전이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익히며 한국 아이웨어 산업의 잠재력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적으로 ‘러닝’과 ‘웰니스’가 트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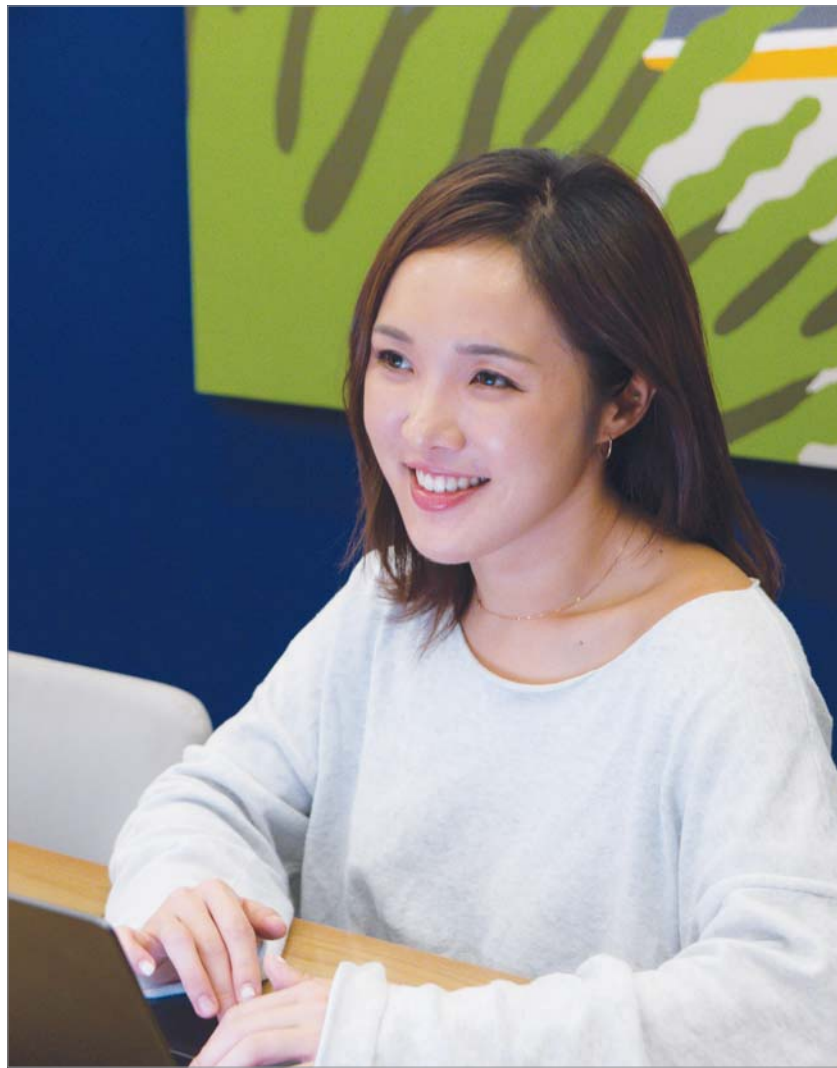


필모리스 글로벌 아이웨어.



싱가포르서 ‘필모리스 글로벌’ 세워
직접 만드는 경험에 매료, 창업 도전
국내 제조 기술에 감성·브랜드 더해

라이프스타일 활발한 도시 공략해
고객과 함께 뛰며 브랜드 경험 확장
동양인 맞춤, 합리적인 가격·차별화
내년 세계적 스타트업 허브 입주 목표



기여운 필모리스 글로벌 대표가 메트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필모리스 글로벌

드로 떠오르고, ‘젠틀몬스터’와 ‘블루엘리펀트’ 등 한국 브랜드가 패션 시장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을 얻었다.

“한국 제조업의 품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제는 그 기술을 감성과 브랜드 스토리로 확장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러너들과 함께 뛰며 성장하는 브랜드

필모리스 글로벌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호주, 홍콩 등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이 활발한 도시를 공략하고 있다.

기 대표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SNS와 문화로 연결돼있다”며 “필모리스 글로벌의 현재 목표는 서울·싱가포르·홍콩 같은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브랜드로 자리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딩 전략 또한 독특하다. 그는 ‘함께 뛰며 브랜드를 경험하는’ 방식을 택했다. 서울 망원동에서 시작된 5K 러닝 이벤트 ‘Run the City Awake’는 싱가포르, 홍콩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러닝 커뮤니티로 확장되고 있다.

“건강한 아침을 여는 러너들의 모습이 곧 필모리스의 정신이에요. 도시를 깨우는 브랜드, 그게 저희가 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프리미엄 품질을 합리적으로

필모리스 글로벌 고글의 강점은 모회사의 30년 제조 노하우와 ‘아시안 핏’ 설계다. 대부분의 글로벌 브랜드가 서구인의 얼굴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지만, 필모리스 글로벌은 동양인의 얼굴형과 두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해 착용감이 안정적이고 장시간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다. 편광렌즈·변색렌즈를 적용해 자외선 차단과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며, 모든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돼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질을 유지한다.

“좋은 제품이 꼭 비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줄여 프리미엄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기 대표는 “최근에는 AI를 통해 시장 테스트, 리스크 분석은 물론, 디자인 피드백도 받고 있다”며 “AI를 통해 고객 맞춤형 아이웨어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고객 맞춤형 안경 제작 서비스 개발 계획을 밝혔다.

◆순탄치 않은 창업의 길…직접 부딪혀야

창업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준비된 타이밍은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그의 팀이 자주 외치는 ‘Stop Overthinking(과하게 생각하지 말자)’ 역시 그 철학에서 비롯됐다.

“처음엔 뭐든 두려웠어요. 그런데 깨달았죠. 완벽한 순간은 없고, 생각나면 바로 해야 한다는 걸요. 리스크 분석이 몸에 밴 사람이라 늘 시나리오부터 봤는데, 스타트업에선 그게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깨지더라도 빨리 깨지고,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기 대표는 실제로 거리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며 브랜드를 알렸다. “홍대 거리에서 시민들께 선글라스를 써드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엔 민망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간절함이 통한다는 걸 그때 느꼈죠.”

이후 부산 전포동의 빈티지숍과 이색 콜라보를 진행했고, 양양의 서핑숍에도 직접 찾아가 협업을 제안하며 첫 판매를 이뤄냈다.

기 대표의 내년 목표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인 스테이션(Station) F 입주다. 또 3~5년 내 매출 4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는 “이 사업을 제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완성해 아버지께 ‘이제 저도 제 길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며 “완벽한 준비는 없으며, 생각한다면 오늘이 바로 (실행에 옮길) 그날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런 이벤트에 참석한 러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필모리스 글로벌



▲야마모토 ‘완투승’, WS 1차전 패배 설욕한 다저스
▲프로야구 전문가들 KS 전망 “LG 우세…6~7차전 갈듯”
/사진 뉴시스

▲‘김민재 풀타임’ 원헌, ‘카스트로프 퇴장’ 원헌 글라트바흐 3-0 격파
▲‘EPL 챔피언’ 리버풀, 브렌트포드에 석패…4연패 부진

▲배드민턴 김원호-서승재, 프랑스오픈 결승 진출…시즌 9승 정조준
▲류현진 이름 딴 전국 중학야구대회 열린다…내년 3월 개최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LEEUM

In partnership with
KB Financial Group

리움미술관 현대미술 소장품전 전시 후원
사진 이한구, 사진 제공 : 리움미술관

KB ART GALLERY

Kiaf SEOUL | KB금융그룹

문화가 꽃 피는 나라
희망이 자라는 대한민국

K-팝부터 K-무비까지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그 주인공인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쉽게 접하고
K-컬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Kiaf SEOUL, 리움미술관 후원
전국 45개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까지
국민의 금융 KB가 힘이 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iaf SEOUL 2024, 2025 리드파트너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KB가 국민과 함께 지원합니다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 국민지갑 ▶ 편의 ▶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무료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KB금융그룹